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8 1982년 11월 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1, 1982

EAST ASIAN LIBRARY NOV 2 -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익명의 교민 2명 $1만씩 약정

모금액 $10만 육박

$1백만 한인회관 멀지않을듯

새한인회관 이전을 위한 모금액이 10월말 현재 9만달러에 달해 모금목표액 30만달러의 고지가 멀지 않은것 같다.

지난 10월초 익명을 요구하는 모교포가 거금 1만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한후 또 다른 교포가 1만달러를 약정하는등 거액 회사자가 계속 늘고있다.

이들은 내년 7월까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금위원장 조한철박사는 "토론토에서 사업을 하는 모교포를 방문했을때 그는 선뜻 1만달러를 회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또한 친구를 소개해주어 이같은 소득을 올렸다"고 말했다.

거액회사자들의 대부분이 약정금액(약 7만달러)이나 이제는 한인사회의 신용도 높아져 수금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모금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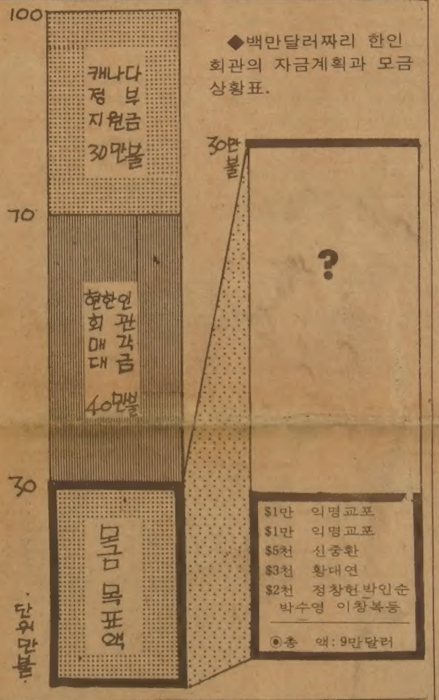
모금위원회는 30만달러 모금을 목표로 적극 활동을 펴고있으며 목표액에 육박하면 기존 한인회관 판매대금 약40만달러와 캐나다정부의 지원금 30만달러를 합쳐 100만달러짜리 새 한인회관을 구입할 예정이다.

모금위원회는 최영식씨를 새 모금위원으로 맞아들이고 홍중표(토론토경찰불평처리자문위원)씨를 고문으로 추대하는등 모금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인장로교회(박희민목사)에서는 사회부(부장 배형도)가 주동, 회관저팀기금을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내에서 짜장면 판매를실시, 수익금 전액 850달러를 회사했다.

단돈10달러에서 부터 1만달러까지의 거액회사자가 속출하는데 힘을 얻은 모금위원회는 내년 7월을 독표액 달성 시한으로 잡고있다.

이기금의 회사자는 세금공제의 특권을 받게 된다. 기금회사 희망자는 토론토한인회(Korean-Canadian Cataral Association 20 Mobile Dr. Torono M4A 1H9 전화: 755-9288)로 연락하면 된다.



◆백만달러짜리 한인회관의 자금계획과 모금상황표.

내년도 수출목표 14.4% 늘은 $250억

(서울29일=연합)경제기획원은 한국의 83년도 수출목표액을 전년도보다 14.4%가 증가한 미화 250억달러로 책정했다.

29일 경제기획원 소식통은 83년도 국가수지적자액을 82년의 20억달러에서 10억내지 15억달러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억 책정은 너무 적다"

「온」주 재무, 연방 정부 비난

프랭크·밀러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평하면서,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의 고용증대를 위해 1억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며 이를 2배로 늘려 최소 2억달러는 지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러장관은 연방정부의 로이드·액스워시 고용장관과 29일 토론토에서 만난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하면서 연방정부가 지역별 안배에 있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밀러장관은 이어 연방정부가 2억달러를 온타리오주정부에 고용증대'자금으로 지급해 준다면 주정부도 2억달러를 내놓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제6회 신춘문예

응모마감 12월15일

해마다 숨어있는 신인을 발굴, 캐나다 한인문단에 진출시키는 신춘문예 시즌이 다가왔다.

캐나다한국문인협회(Korean Canadian PEN Club, 회장 조정대)는 제6회 신춘문예 현상작품을 공모중이다.

모집종목은 단편, 시, 수필, 평론, 희곡, 아동문학등 6개 부문이며 마감은 82년 12월15일이다.

당선자 발표는 내년 1월1일로 각부문 당선작 1명과 가작 1명에게 트로피및 부상을 수여한다.

문인협회 심사위원측은 필명이나 가명으로 된 작품은 무효이며 반드시 본명을 적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모집종목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30~60매
◉시(시조포함): 편수 제한없음
◉수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론(테마자유): 200자 원고지 40매이내
◉희곡: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동요·동화·동화시·동시): 200자 원고지 30매이내
제출처: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금주의 행사▷

— 11월1일(월)~7일(일) —

◆10월~12월 「신춘문예」 공모중
주최: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연락처: 533-2861(Mr. Lee)

◆2일(화) 하오6시 한인 YMCA 이사회
곳: 한인YMCA회관(931 College St.)
연락처: 536-1166

◆4일(목) 하오6시30분 한인스키협회 이사회
곳: Inn on the Park
연락처: 491-1931(박경택)

◆5일(금) 하오7시 - 고신부 환송·최신부 환영파티
곳: 프린스호텔(돈밀×욕밀 서북네거리)
연락처: 863-0415(Mr. 유)

◆5일(금) 하오7시 한인컴퓨터협회 세미나
곳: 비포드팍고교(777 Bloor St. W.)

◆6일(토) 하오7시 청소년자선예술제
곳: Central 고교(570 Show St. Tor.)
연락처: 755-9288(한인회)

◆6일(토) 하오7시30분 한인배구협회 총회
곳: 블린톤하우스(693 Bloor St. W.)

◆6일(토) 하오1~4시 교회 중·고부 성경퀴즈대회
곳: 제일한인장로교회
연락처: 266-8925(이전하)

◆6일(토) 하오6시 풍문여고동창회 창립총회
곳: 91 Dunmorray Blvd.
연락처: 233-3349(조남정)

◆7일(일) 하오3시 반병섭목사 위임예배
곳: 한인(연합)교회(69 William St.(Weston))
연락처: 243-9543

11억달러 경기부양책

(오타와) 실직보험분담금(Unemployment Insurance Premiums)이 내년부터 약40% 인상될 것이라고 마크·랄롱드 재무장관이 밝혔다.

실험보험금 3.4% 인상

$3천 주택보조 연장

랄롱드장관은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연방정부는 또한 (1)고용을 증대시키고, (2)주택건설을 부양시키며, (3)캐나다의 철도망을 최신화시키기 위해 11억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새로운 예산은 현재의 예산중 에너지부문에서 6억6천만달러, 국방부문에서 2억3천만달러, 외국원조부문에서 2억4천5백만달러를 삭감, 전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랄롱드장관은 말했다.

랄롱드장관이 하원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 1월1일부터 고용원의 실직보험 부담금이 100달러당 현재의 1.65달러에서 2.30달러로 39.4%가 오른다. 고용주의 부담금도 역시 39.4%오른 100불당 3.22달러로 인상됐다.

▲연방정부는 60만명의 고용증대를 위해 캐나다에서 경제사정이 가장 좋지않은 지역에 앞으로 18개월동안 5억달러를 지원한다.

▲새 주택매입자와 헌집이라도 주택을 처음 소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3천달러보조금 신청기간을 내년4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주택수리를 할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융자금을 지급하는 Home Renovation Plan에 5천만달러를 추가, 6,50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한다.

▲캐나다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 4억달러를 지급한다.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아이스·커페이즈단의 주연으로 활약하는 한국 태생의 윤호진양(22).
(관계기사 2면)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점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마크(로고)
현상금공고

★회사명
Young I. Hyun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 Inc.

★내 용
◉Human Resourses Management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Repu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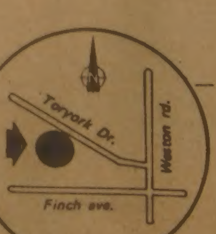
【인사, 자금, 사업경영, 부동산 투자】

※Logo has to be professional & with Integrity.

▲보낼곳: 58 Talwood Dr. Don Mills, Ont. M3B 2P5
▲현상금액: 상당액의 사례금.
▲응모마감일자: 82년 11월30일까지.

국제경영 Consultant
공인회계사(C.A.) 현영일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745 : 7400)
*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미용실 스타
파마 / 염색 / 헤어컷
예약전화 : 741-4410 (집) 742-6827
영업시간 : 9:00 A.M.- 8:00 P.M.
(일요일 월요일은 휴업)
2437 FINCH AVE. W. WESTON, ONT.
(Finch main Plaza) (주차장 완비)
741-4410

East Asian 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아이스·커페이즈 토론토 공연
윤효진양 주연으로 활약
11월2일부터 메이플립 가든즈에서

한국태생으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이며 현재 아이스·커페이즈단의 주연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효진(22)양이 오는 11월2일부터 7일까지 메이플·리프·가든에서 공연차 토론토에 온다.

매년 한번씩 토론토에 오는 아이스·커페이즈단은 톱·클래스 스케이트·쇼단으로 화려한 무대와 음향장치, 단원들의 슬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한국인 처음으로 80년에 아이스·케페이즈에 입단한 윤양은 75년부터 2년간 한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으로 76년 오스트리아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선수로 출전, 세계챔피언 도로시·해밀과 겨루었었다.

4살때부터 스케이트를 시작, 72년 캘리포니아로 이주 했으며, 현재 산타모니카 칼러지1년 재학중인 윤양은 특히 81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작품 "호두까기 인형"에서 한때 경쟁 상대였던 도로시·해밀과 나란히 주연을 맡았다.

아이스·커페이즈의 이번 토론토 공연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즐기는 만화 스머프(smurf)의 인물로 분장하는 "Smurfs Alive"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연에는 윤효진(Jean Yun), 도로디·해밀외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샌디·렌즈, 폴·히스등이 출연하며, 윤양이 주연하는 작품으로는 호도까기 인형외에 중국우화인 "바다 요정과 왕자"등이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몬트리얼의 "The Forum"에서 공연한다.

메이플·립·가든즈에서는 2일부터 5일(화~금)까지는 하오 7시30분에, 6일(토)은 12:00, 4:00, 8:00, 7일(일)은 2:00, 6:00 각각 공연이 있으며 티켓값은 $6.00, $8.00, $9.00이다.

16세이하및 노인은 각 반액할인된다.

티켓구입은 가든즈 박스·오피스나 각 Bass 지점, 전화로는 698-2277로 크레딧·카드로서 주문가능하다.

미성년, 노인 할인표는 977-1641로 문의토록.

인권보호에 먹구름
세계곳곳서 정적 투옥

(런던) 전세계적으로 정적과 반체제주의자와 비동조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탄압이 늘고 있어 인권보호문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런던에 있는 인권옹호단체인 「국제사면(AI)」은 27일 121개 국가의 인권현황에 관한 1982년도 연례조사보고서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들이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고문하거나 죽이고, 정치범들을 재판하지 않는채 수감하는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사면보고서는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행해진 인권유린 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정치범이나 정적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는 살인 이외에 가시 돋친 철망을 이용한 매질, 성적인 고문, 신체절단, 모의 사형 집행과 같은 심리적 고문등으로 밝혀졌다.

국제사면은 반정부주의자를 재판도 하지 않은채 구속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은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네이, 필리핀등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베트남, 라오스, 중공등 3개 아시아국가들은 죄수들을 『재교육』 목적으로 수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면보고 대상에서 아예 제거되었다.

국제사면보고서에 따르면 페르디난드·마르코스대통령이 집권중인 필리핀정부는 반정부 협의자들을 살인하거나, 납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마르코스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은 주로 경찰로 구성된 비밀인권탄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파키스탄정부는 사법제도의 기능을 말살, 재판을 거치지 않은채 수백명에 사형집행을 명했으며, 정치적 투옥, 고문, 임의체포등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 실시가 국제기준에 미달된 국가들은 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쉬, 중공등으로 밝혀졌다.

국제사면은 일본,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파키스탄, 뱅글라데쉬등 여러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공에서는 작년 8월 2주동안의 단기간에 적어도 87명의 죄수들이 사형집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현재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작년에 15명의 정치범들이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또한 보고되었다.

교포사격선수권대회
11월13일, 노년층도 환영

오는 11월13일 토론토북쪽 토론토 건클럽에서 교포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사격·수렵협회(회장대리 한희정)창립 5주년을 맞이해 벌어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및 단체전으로 나뉘어 개최 되며 주니어부(소년·소녀부) 시니어부(노년층)는 별도로 시상된다.

이번사격대회의 종목은 트랩으로 날으는 접시를 쏘는것이다고 하며 특히 노년층과 초보자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총이 없는사람은 사격협회에서 대여하며 참가비는 $35로 디너값과 실탄값이 포함됐다. 참가희망자나 단체는 791-0081(Mr. 한) 또는 755-7643(Mr. 배)로 미리 연락하면 된다.

▲ 금이간 13세기 성프랜시스 성자상.
최근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앗시시에 있는 13세기 성당벽화에 큰 금이가서 문화재 당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벽화는 13세기 이탈리아 화가 지옷토가 그린 성프랜시스 성자상이다. (UPI)

이철수 제 2사건 재판
이유 없이 늑장부려

이철수씨의 제2사건(옥중정당방위)항소심재판이 지연되고있다.

이씨는 이미 지난9월3일 샌프란시스코법원으로부터 제1사건의 완전무죄확정을 받았으며 제2사건은 10월중에는 열릴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항소심은 이철수씨의 제2사건에 대하여 제1사건판결후에 심리한다는 이유로 2년간이나 판시를 연기해왔다.

그러나 제1사건이 확정됐음에도 항소심은 특별한 이유없이 판시를 지연해 이철수후원회를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초조감을 주고 있다.

〈유인형수필선〉
힘

◆유인형씨

힘이다.

힘이 없으면 어린이와, 여인들과 노인들이 차례로 희생 당한다.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을 보라. 엘살바도르의 무차별 살육을 보라. 아프가니스탄에 생화학 무기로 독을 살포하는 현실을 보라. 폴란드의 절규를 보라.

비단 현대뿐 아니라, 세계사는 힘의 기록인 것이다. 악과 불의와 암흑과 폭력과 썩어지는 부패 등등은 모두가 힘이 없을 때 찾아온다. 어느 집단이나 국가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UN이란 힘있는 자들의 놀이터이다. 조금 시끄러워지면 몇백명이 몇천명으로 살해된 숫자만 바뀌는 곳이다. 그저 그 뿐이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만 인권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준 저들은 어느 사이에 「분단」이란 새로운 단어만 주었을 뿐이다. 모두가 힘없어 당하는 분노이고 아픔이다.

힘이란 오늘과 내일을 뚫어보는 생각이 있을 때 자라난다. 자유니 독립이니 평화니 하는 건 힘이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힘, 스스로 깨닫고 뭉쳐주는 힘이 있을 때에만 최후의 보루인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천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핏줄이란 게 있는 것처럼 공통된 관계 속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뭉쳐질 때 힘이 자란다.

매순간마다 변화하는 도처에서, 또 어떤 끔찍스런 살륙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른다. 힘없는 질책은 공허스럽다. 이제는 인권이란 말이 사치스럽다. 그건 배부르고 힘있는 자들의 헛소리다. 힘없는 집단에 자유는 또 무슨 자유인가.

천국이란 말도 귀에 거슬린다. 감미로운 자장가이다. 살아생전에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부모들에게 안정과 행복감을 만들어 주면서 공동의 힘을 기르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천국도 어려울 것이다.

뼈저리게 쓰라린 저들을 남겨놓고 무슨 욕심으로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가겠다는 것인가?

힘이란 모여야 나온다. 절망, 허무, 아픔, 몸부림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교포형제들과 더불어 저 전율의 공포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들도 조금만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면 공동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에까지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힘의 길을 곰곰 새겨봐야겠다.

뭐니뭐니해도 본질적으로 핏줄이고, 힘인 것이다. 지렁이도 용으로 만들어 주는 단합의 힘인 것이다.

힘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다. 힘의 원천은 역시 마음 하나로 집약된다. 마음의 힘부터 키워야겠다. 생명이 고귀한게 아니고, 힘이 존귀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힘 없으면 당한다. 투철한 각오로 힘을 키워야 할 때이다. 오직 힘이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제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동부)	291-8317
서울식품(서부)	243-9544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8〉
29분의 1 ③
29집 조사했으나 아무런 단서 못잡고…

제10반 차례가 되었다.

『제약회사에서는 거의 무절제하게 현상을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특별히 감독한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야?』

대머리는 핀잔을 주고나서 11반 반장을 바라보았다.

『병원도 마찬가집니다.』

『간단해서 좋군. 12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전국에 등록되어있는 RH(-)형 보유자는 현재 5천3백92명입니다. 이들중 여자와 15세미만의 남자,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자를 제외한 1천4백5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읍니다. 아직 까지는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조사가 모두 끝날 것입니다.』

제13반 반장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모씨 성을 가진 사람은 현재 2만4천85명입니다. 이중조사대상에 오른 성인남자는 8천2백14명입니다. 현재 주소지별로 전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모레쯤에나 끝날 것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14반은 위조전문가에 대한 조사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조전문조직은 15개파가 있읍니다. 그밖에 조직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야?』

『15개파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내일쯤에는 조사가 끝납니다. 나머지 개인에 대해서는 언제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할수가 없읍니다.』

『그걸 알아내야 해. 10반과 11반은 14반을 지원해서 위조범들을 조사하도록 해.』

제15반 반장 김준호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피살자의 손톱밑에서 채취된 섬유질은 K회사가 미국과 제휴에서 만들어낸 아라비안 카피트라는 양탄자였음이 확인됐읍니다. 최신제품으로 볕에 타지 않고 습기도 배지 않으며 때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에 출하를 시작한게 두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판매점을 통해 서울시내에서 팔린게 2백15장이었읍니다. 각 판매점은 물건을 구입자의 집에 배달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구입자들의 주소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2백15매중 적선지대에 배달된 숫자를 조사했더니 29매가 나왔읍니다.』

『29매!』

대머리는 신음하듯 말했다.

『네, 29매입니다. 범인의 집은 스물아홉군데 중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29분의 1입니다.』

『대단한 수확인데…』

대머리가 중얼거리자 다른 반장들도 술렁거렸다.

대머리는 제1반장을 바라보았다.

『지금 바로 스물아홉집을 체크해봐! 빠진 집이 있는지말이야!』

『알겠읍니다.』

적선지대를 전담하고 있는 5개반 반장이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제1반장이 보고했다.

『한 집 빠짐없이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아무 단서도 포착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朴男 그림

서기 2천년
로보트가 잔디를 깎고
컴퓨터는 전화처럼 흔해진다

앞으로 18년뒤 즉 서기2천년 에는 잔디는 로보트가 깎고 세계 체스(Chess)챔피언자리는 컴퓨터가 차지할 것이며, 아침식사때 먹는 시리얼(Cereal)은 아마 나무(Wood)에서 생산될 지 모른다.

이같은·예측은 온타리오 산업·무역성의 요청으로 오타와의 칼톤대학과 오타와대학의 공학부가 작성한 "2천년대의 기술"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컴퓨터와 인간과의 대화가 가능케 된다. 그러므로 심리분석학자들은 컴퓨터와 인간간의 깊은 감정적 교류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잔디깎기등 집안의 잡일중 단순한 육체노동은 로보트가 담당한다. 그러나 도자기를 만진다던가 하는 섬세한 일은 10년이상 더 기다려야 가능하다.

◆일부 식품은 인공적으로 만들게 된다. 예를들어 시리얼은 나무조각에서 만들수 있게된다.

◆비과학적인데 대한 인류의 이해가 깊어진다. 죽음, 다시 태어남, 죽은뒤의 삶에 관한 사실이 밝혀져 삶의 의미, 협력, 코뮤니티등의 의미가 새로와 질 것이다.

◆세계 체스챔피언쉽은 컴퓨터가 차지 할 것이다.

◆컴퓨터는 마치 전화기처럼 흔해져 많은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차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내에서 뭔가 고장이 나면 자동적으로 신오가 오는 자가전강진단기구가 발명된다.

교민체위향상
Y 체육관 계획수립

토론토한인YMCA(이사장 전택균)는 11월2일(화) 하오6시반~8시 Y이사실(931 College St. TOR.)에서 이사회를 연다.

안건은 매주 토요일(하오6~10시) Y회관(체육관·수영장·집회실)을 한인Y회원들을 위해 개방하는 구체적 계획과 성탄만찬회(12월10일), 신년교례회(1월1일) 계획수립및 회원확대 문제등이다.

83년도 장미의 女王 탄생

▲수지·길레스피양(17)이 27일 제65회 로즈퀸으로 당선된 순간 감격에 찬 표정을 보이고있다. 오른편은 후보중 하나로 시녀가될 메리·헤르난데즈양. 내년 1월1일 파사데나에서 거행되는 로즈퍼레이드의 선두에 설 길레스피양은 5피트3인치키의 금발머리로 산마리노고교재학중. 1천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발된것이다. 〈파사데나, 캘리포니-〉

엄마 애기가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애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교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다년간 쌓은 보험관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위해 성실한 일꾼으로 봉사드릴 것을 다짐하오며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강경범 올림

● 1978~1981 동해생명보험(주) 영업소소장.
○ 연수및 교육강사
○ 생명보험협회 Agent. 시험관리위원
※현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근무
(B)233~6236 (R)279~7774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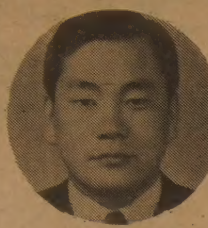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M9B 3Y8

Gyung Bum Gang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연합회」비판기사를 읽고

이유식(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이유식 씨

그랜트 낭비란 왜곡 보도 반대위한 비판은 지양돼야

지금 생각해도,아니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안은 없지·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쨌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동지 논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14개 한인회장이 어느 누구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78년도를 기준으로 한인회장을 역임한 분들께 인격적인 모욕을 준 점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해야 할것이다.

둘째, 총연합회란 조직의 인정문제에 있어서 귀지논단에 묻고 싶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대표로 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귀지는 토론토를 예로 들었는데 토론토의 집안사정을 타지역한인회가 알길이 없고 알방법도 없고 또한 알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필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78년도를 기준년도로 해마다 회장이 바뀌면 전임회장이 후임회장에게 총연합회의 업무를 인계함으로써 총연합회 존재가치와 정회원의 확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각지역 한인회에 따라 어떻게 인수인계와 존재가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지역 사정이지 이것이 각지역 한인회에 파급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지역에 이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귀지 주장대로라면 해마다 총연합회 구성요원과 인정을 위하여 창립총회를 해야 된단 말인가. 좀 더 차원높고 이성에 입각한 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 10월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한인의 날 행사만 해도 그렇다. 귀지 논단은 50여명에게 항공표를 제공하고 전체 한인의 이름을 팔아 호화판 한인의 날 잔치를 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나온 그랜트를 몇몇 사람의 잔치 치닥거리 운운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언급할만한 값어치도 없는 모략의 글을 썼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어떻게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듯 무책임한 글을 쓸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이 논단을 쓴 사람의 양식을 의심하며 한심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글이란 한자 한자 마음에서 우러난 양심에 입각해야 하고 충분한 내용을 소화하고 자구화해야 할 것이다.

양심을 위배하고 진실성 없는 글은 글이 될수도 없고 독자에게 공감을 줄수도 없을 것이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현재 총연합 정회원은 창립회원과 78년도를 기준년도로 전국에 80여명 이상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80여명이 한인의 이름을 팔아 그랜트를 받아서 호화판으로 낭비를 했단 말인가? 나는 80여명 이상의 우리 정회원의 양심에 묻고 싶지만 과연 우리가 한인교포의 이름을 팔아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이렇듯 호화스럽게 낭비했느냐 말이다. 80여명의 회원들께 이렇듯 인격에 모욕을 줄수 있단 말인가? 신문이 무서워서 이렇듯 오도를 해도 우리 80여 회원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과연 신문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신문사는 누구의 호주머니돈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거짓된 왜곡 기사로 선량한 교민들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어도 입을 막고 눈을 감아야한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고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다. 어쨌던 10월 한인의 날 행사는 왜 해야 했는가에서 부터 생각해보자.

81년 정기총회에서 한인의 날을 제정한 것은 우리 대로 무엇인가 우리의 고유것을 살리고, 지키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정하고 전국적인 지방한인회에도 이날을 기념하여 최소한 이날만이라도 우리의 날로 정하여 전국교민의 단결력과 상부상조로 우리의 고유전통문화를 이 나라에 파급하고 우리 2세들에게 지속시켜 나감에 목적을 두고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후 겨우 처음으로 전국적인 모임으로 이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이번 모임이 주선되었던 것이다. 이에 경비만 해도 그렇다. 우선 비행기표만 해도 예산의 부족을 막을려고 전회원이 SKY BUS표를 샀었고 거기에 예산의 부족으로 참가해야할 정회원도 다 참석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5만 교민의 앞날을 위한다고 연2일간 새벽3시까지 회의를 했었다.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단 말인가. 한인의날 선포를 본후 그래도 우리대로는 전국적인 모임을 갖고 이를 과시함으로 캐나다 속에 우리의 얼을 심는다는 과시력을 생각했고 작은것보다는 큰것을 얻는 방법을 심사숙고 끝에 이번과 같은 전국적인 모임을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노파심에 의한 충고는 달갑게 받아드리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교민의 앞날을 위하여 각성을 해주기 바란다. 다시 귀지 논단에 묻는다. 과연 이나라 정부에서 아니 우리 모국정부에서 총연합회원 몇몇을 위한 호화판잔치를 위하여 그랜트를 줄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상식이하의 글로 총연합회를 모략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회의만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인종차별및 국제결혼 문제에 관하여 격조높은 심포지움을 가졌었다.

과연 총연합회란 조직이 없다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이러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대로 이러한 문제의 제기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여 앞날에 닥칠 우리 민족의 갈길을 제시코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렇듯 혹독한 비판을 한단 말인가?

지면상 더이상 언급을 회피하겠다. 나에 대한, 반론에 대한 어떤 다른 반론도 값어치 없는 반론이 나올것을 감안,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글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귀지 논단에서 총연합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쓴 글로 이해를 모으려 노력한다. 또 전의하고 싶은 것은 귀지 논단 집필자도 어느 지역이면 정정당당히 한인회장에 입후보하여 한인회장으로서 역량껏 교민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총연합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달라고 권고하고싶다. 지역단위 한인회장도 될자격과 능력이 없는 인격의 소유자라면 총연합회에 대한 비판은 삼가해야 하고 설사 비판을 하고자 할때는 충분한 내용을 알고 비판과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 귀지 논단 집필자는 캐나다 전국 14개 한인회장을 역임했거나 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는가를 각성해야 할것이다. 나의 글에 무뢰함이 있었다면 아량으로 받아주기 바라며 캐나다 5만교포 위에 총연합회를 아끼는 마음, 나아가 조국 대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두서없는 반론을 제기해 보았다. 독자들의 양식있는 판단을 바라마지 않는다. ●

◆할로윈 수녀-할로윈 장난꾸러기들이 수녀복 차림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덴버시내를 돌아다니고있다.(덴버-)

시험관 태아 냉동보존 가능 불임 여성에 이식할수 있다

시험관에서 생성된 인간태아의 냉동보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정된 태아를 냉동저장소에서 꺼낸뒤 불임여성에 이식할수 있게 됐다고 26일 오스트랄리아 연구팀이 발표했다.

이같은 보고서는 시험관 수정과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지금까지의 시험관 태아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수정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도된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다른여성의 난자를 이용할수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으며 얼렸다 녹이는데 따른 위험성도 우려되고있다.

멜버른의 모내쉬대학교수인 알렌·트로운슨박사는 냉동시험관 태아가 『난자가 없는 여성이나 유전병을 가진 여성에게 임신을 가능케하는 해결책이 될수 있다』면서 기증받은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켜 냉동했다가 아내가 태아를 받을 신체적준비가 되면 이식시키게된다고 설명했다.

오염된 타이레놀반납 女人을 용의자로수배

〈AP·UPI 종합〉 타이레놀 중독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있는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타이론·파너는 수사가 진전, 곧 한사람의 용의자를 체포할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한 파너검찰총장은 현재 수사당국은 또 가명을 쓰고 오염된 타이레놀캡슐이든 약병을 경찰에 반납한 한 여자를 수배중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토론토시

쓰레기 수거일변경

★현충일
1982년 11월11일(목)

1982년 11월11일(목)에는 쓰레기 수거가 없읍니다.
정기 목요일 수거(11월11일)는 11월15일(월)에 수거합니다.

※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7개소의 유리와 금속을 재생하는 장소가 있읍니다. 지난 8월동안 213톤의 신문지와 34톤의 유리조각, 그리고 6톤의 깡통이 수집되었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367−7742로 연락하십시오.

학생모집
<장학금제도실시>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본 뮤직·칼레지는 최신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심껏 지도하고자 하는 음악전문학교입니다.

교수진 카나다 명문음대를 수료한 B.A.,A.R.C.T. 학위소지자로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었읍니다.

과 목 피아노/전자올겐/바이올린/기타/첼로/플롯/성악

편 성 ① 각부 초, 중, 고급반 ② 개인지도반, 그룹지도반 ③ 전과목 이론및 실기

MOZART COLLEGE OF MUSIC
모짜르트 음악학원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883−9407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881−8211

K.W. 밀알교회
창립 예배안내

아래와 같이 K.W.밀알교회 창립 예배를 안내합니다.

일 시 : 82년11월7일 2P.M.
장 소 : 밀알교회당
(First United Church)
16 William St. W. Mall
William St. x King St.

연락처 : 토론토 745−7370
워터루 886−2093
키치너 576−1829

1982년 10월

미주한인장로회
K.W. 밀알교회
창립위원일동 드림

한국일보

實名制 留保·修正 불가피

내일 黨政회의서 具體的협의

民正 일부반대에 野도 加勢

정부와 民正黨이 黨政협의 조정을거쳐 제출한 金融實名去來법안이 2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財務委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대폭 修正하거나 실시를 留保해야한다는 의견이 與野의원들간에 지배적으로 대두되고있고 民正黨 당직자들도 黨論의 再檢討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시保留나 대폭 修正이 불가피할것같다. 民正黨은 29일의 黨政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당직자회의를열고 실시보류나 延期, 修正·補完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李民正대표도 黨論변경가능성 비쳐

李椒澄 대표위원은 27일 『民正黨은 8월 이후 많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아직 결정한바는 없으나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하고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위해 정책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黨論변경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金峻成부총리도 국회에서 實名制의 실시유보를 비쳤다』면서 『實名制의 발표이후 저축성예금이 要求拂예금으로 빠져나가 한시택시 값이 급등하고 아파트투기현상이 再現되고있으며 證券시장이 위축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성이 어렵고 겨우잡은 5%의 물가억제조차 소진될 염려가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黨職者들도 이날 『앞으로 5차5개년계획에 투입되는 자금과 재정赤字를 충당하기위해 발행될 9천억원의 國債발행을 국내자본시장에서 조달해야하는게 實名制 실시로 자본시장이 위축될경우 조달하기가 매우어려울전망이어서 실시보류나 補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民正黨재무위 간사인 鄭順德의원과 郭正出의원등은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實名制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이며 民正黨소속재무위원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實名化법안을 일단 통과시켜 주더라도 실시기간의 유예, 점진적이고 단계적 실시등의 방법이 뒤따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위의 民韓 국민당소속의 대다수의원들도 實名制를 철회하거나 與件이 조성될때까지 보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재무위는 27일하오 금융去來實名法案을 비롯 ▲은행법개정안▲국민은행법개정안▲국가 債權法개정안▲公共차관도입및관리기금법개정안등 6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이들 의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姜慶植재무장관은 實名去來法案에대한 제안설명에서 『저축증대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돼온 무기명가명금융거래는 지하경제를 가능케해 實名경제의 교란요인이됐을뿐아니라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시키는등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전제, 『실명 거래방안은 금융재산의 실명거래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와함께 합리적과세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천덕 구러기…

"油價 稅率따라 내리겠다" 답변

질문 "銀行株소유상한 3~5%로 줄여라"

常委질의답변

국회는27일하오 內務 財務등 11개常委를 續開, 소관부처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일부常委는 정부가제출한 일반法案의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豫決委는 82년도 追更案에 대한 정부측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들은뒤 分科委를구성했고 올림픽지원特委는 體育部에대한정책질의를벌였다. ★錄音3면

財務委 金台植의원(民韓)은 『금융實名化 문제에대해『이는 83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要求拂 가명예금은 83년 6월30일까지 實名化하는등의 단계적방법을택하라』고 촉구한후 『大株主 계열기업의 증자와 재벌계열기업 인수및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로 贈與상속세의 탈세방지는 물론 부정축재에 대해서도 과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趙炳鳳의원(국민)은 實名制에 대해 『무기명금융자산에 대한 특례, 세무조사특례, 과징금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하는이상 實名化의 의미는 찾아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實名化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국회에 계속계류시키면서 경제 사회여건이 성숙될때까지 기다릴 의향은없는가』고 질의했다.

趙의원은 재벌기업의 은행株매입 상황에 대해 ▲三星이 商銀株13·5% 朝銀10% ▲大宇가 第一銀16·7% ▲럭키가 第一銀10·1% ▲大林산업이 第一銀12·1% ▲東亞건설이 信託銀10% ▲韓進계열이 朝銀11·2%등 주식소유상한 10%를 상회하고있다고 밝힌후 『10%한도를 3~5%로 줄일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商工委 徐相哲동자부장관은 『휘발유값은 국제수준보다 높고 油種간의 상대적 비교에서도 높은것이 사실』이라고지적, 『휘발유가격은 稅率인하만큼 가격을 인하해 특별소비세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추진중』이라고밝혔다. 그는 또 『LPG 가격도 特消稅10%가 부과돼도 국제가와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 부담이가지 않도록 국내가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徐장관은 油價인상 문제에 대해 『환율 인상으로 6%의인상요인이 있으나 현재 인상을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유가동향에 대해 『이란-이라크전쟁의확대나 예측못할일이없는한 내년도국제유가 명목가격은 변치않을 것이며 후반기엔 오히려 명목가격이 떨어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文公委 李振羲문공장관은 답변에서『지난 80년정화적차원에서 등록취소된 간행물중 다시 복간신청이있을경우 출판내용등을 심사, 재등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言論의 통폐합 논의된바 없다 李文公

李振羲문공부장관은 27일 국회문공위에서 언론기관의 統廢合說에관한 의원들의 질의에대해 『명백히말해 지금 현재 언론의 통폐합이 논의된바도없고 검토된바도 없으며, 계획된바도 없다』고잘라말했다.

그는 또 『公營방송체제는 현재의 KBS·MBC의 2元체제를 변동없이 유지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保社委 운영正常化

국회保社委는 27일하오 各교섭단체간사와 醫療보험 一元化小委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돼왔던 一元化법안 제출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12월18일까지 一元化법안 試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 空轉을 거듭해온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

이날 與野간사들과 醫保小委는 정부측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12월18일까지 전국민의료보험종합방안試案을 보사위에 제출토록한다는데 합의한뒤 이날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金正禮보사장관으로부터 그동안의 위원회 空轉에 대한 사과를듣고 사회했다. 보사위는 28일부터 보사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받기로 했다.

◇金保社 정중한謝過 5일간 空轉됐던 국회保社委는 醫保一元化法案의 年內제출결의와 金正禮보사장관의 謝過로 일단 정상화됐으나 金장관은 「年內제출不可」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9業體에 3兆대출

7개銀行 자기자본의 1·7倍

개정銀行法이 편중여신을 규제하기위해 설정한 ▲貸出금상한선인 은행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대출업체가 19개업체 그리고 ▲支拂보증상한선인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업체가 31개업체에 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계당국이 집계한 8월말현재 5개시중은행과외환은행및 산업은행등 7개은행의 대출현황을보면 은행자기자본의25%를 초과한 편중대출업체는 한국전력、철도청、포항종합제철、대우조선등 19개업체(은행간 중복된것 제외하면 16개)에 대출총액은3조1천3백69억원(특인기준 대출잔액은 2조8천5백억원)으로 은행자기자본 합계액 1조7천9백26억원의 1·75배에 달한다.

▲자기자본25%초과대출=韓電、鐵道廳、浦鐵、大宇造船(産銀)大成木材、雙龍洋灰、泰光産業、三和、三湖(조흥)、新承企業、浦鐵(제일)大宇、三星物産(상업)、合纖、浦鐵、曉星物産(한일)高麗大農(서울신탁)韓電(외환)

▲자기자본50%초과한支給보증=韓電、大韓航空、浦鐵(산은)大宇、現代건설(외환)鮮京、進興企業、忠南紡績、雙龍정유、三湖(조흥)한양、共榮土建、國際綜合건설、京南企業、正宇개발(상업)大宇、鮮京、南光土建、有元건설、三星綜合建設、起亞産業、國際商事(제일)、忠南紡、太平洋건설、韓一合纖、大林産業(한일)라이프、鮮京、韓信工營、大韓電線(서울신탁)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7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大韓電線그룹 (대한제당·대한제작소·광진전자·대한컨덴서·동성전자 임직원) **2천만원**

롯데七星飮料·후지필름(株)·美化(株)임직원 1천4백만원

太平洋物産(株) 林秉泰대표 外 1백31만원

(株)多美商社 權元重대표 外 1백4만원

▲대한전선그룹 (대한전선2차분, 대한제당, 대한제작소, 광진전자, 대한컨덴서, 동성전자) 임직원一同=2천8만8백23원 ▲롯데七星飮料(株)=1천2백3만4천4백30원 ▲韓國후지필름(株)=1백31만1천8백원 ▲美化(株)=1백11만9천18원

▲太平洋物産(株) 대표이사 林秉泰씨外 任職員一同=1백31만1천원 ▲(株)多美商社 대표이사 權元重씨外임직원一同=1백4만원 ▲관코리아 (극장식카바레, 디스코나이트) 代表 金鍾玉씨外임직원一同=80만원

◇林秉泰씨

◇權元重씨

관코리아金鍾玉씨 外 80만원

興永物産張相國씨 50만원

야구선수 金宇烈씨 50만원

▲興永物産代表 張相國씨=50만원 ▲金宇烈씨 (야구선수)=50만원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鍾路區支會지회장김경수씨외회원一同=45만원 【日刊스포츠접수】

미용사회 鍾路區支會	45만원
韓一石材工業(株)	43만원
大巡眞理會(서울 구로3지구)	40만원
〃 (서울 1지구)	30만원
〃 (서울이태원2지구)	30만원
〃 (서울 이문3지구)	25만원
〃 (서울 보광4지구)	23만원

▲韓一石材工業(株) 代表理事鄭重根씨外임직원一同=43만원 ▲(종단) 大巡眞理會서울구로3지구대표유효우씨外道人一同=40만3천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구의동1지구대표전호덕씨외道人一同=30만7천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이태원2지구대표조규정씨外道人一同=30만7천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이문동3지구대표김순자씨外道人一同=25만5천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보광동4지구대표이춘자씨外道人一同=23만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왕십리제1지구대표이종회씨外道人一同=20만원

〃 (서울왕십리1지구)	20만원
三仙라이온네스클럽	30만원
호우사 朴奎鉉사장外	20만원
당산섬유 직원일동	26만원
대한감리회 대림교회	20만원
寶星鐵鋼 高永洙대표	20만원
서울역삼국교 육성회	20만원

구독신청은 533-2361

▲三仙라이온네스클럽 회장金惠慶씨外 회원一同=30만원 ▲합자회사 호우사社長 朴奎鉉씨外직원一同=26만6천원 ▲당산섬유(永登浦區당산동6가331의1) 직원一同=26만1천원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림교회 김후근목사외 교우一同=20만7천5백원 ▲寶星鐵鋼(株) 대표이사 高永洙씨=20만원 ▲서울역삼국민학교 (3차분) 육성회(대표 김영숙씨 외)=20만원 【소년한국접수】

地平線

이른바 한국고미술상 중앙회회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骨董·도자기·신안해저유물·서화·궁중용품및 청동기류에 이르는 각종 문화재를 해외에 밀반출 하려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명색이 고미술 거래의 정점에 도사리고 앉았던 처지에서 바로 문화재사범의 두목노릇을 하다시피한 셈이니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긴 것과 다를게 없겠다.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만 골라서 실은 도록, 즉「한국미술2천년」에 버젓이 오른 국가의 중보까지 아무런 거침도 없이, 세관을 들락거렸고보면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문화국가의 체면인들 세울수 있겠는가. 세관의 문화재감정관은 결과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하게된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문화재·골동서화의 거래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기 십상이다. 그 유통과정이 백일하에 공개되지 못하고 그늘에서 그늘로 전전하는데는 그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이 소장문화재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 ▼문화재를 등록했을 경우 각종 규제가 뒤따르며 임의처분같은 전매가 여의치 않을뿐더러 중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골동 서화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도굴등 부정품일 경우에는 그 거래자체가 범법행위로 되기 때문에 매매행위는 절로 지하 깊숙이 숨어들게 마련이다. ▼또 국내에서 거래를 하기 어려운때엔 그들의 방대하고 치밀한 밀반출조직을 동원, 해외로 팔아넘기는 범행을 예사로 저질러 온 것이 지금까지의 풍토였다. 골동상 조직의 우두머리가 불법과범죄에 가담했던 사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곧 골동품 범죄의 실상 이었다. ▼이처럼 해묵은 악습의 챗바퀴를 일도양단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또는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사범을 수사하는 전담기능과 전문수사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관감정관의 질적향상도 의당 따라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직적이고 고도로 지능화한 범죄집단의 박멸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울듯하다. ▼이와함께 고미술상 스스로도 세간의 불신과 빈축을 모면하려는 노력을 보태야 할것이다. 그를위해 우선 문화재사범의 전력이있는 범법자들이 그조직에 발붙이는 것을 허용치 말아야한다. 더구나 그런 자들을 임원으로 삼는 따위, 명분 잃은 처사는 즉각 지양돼야하고 유통구조의 공명정대성을 행동으로보여야 할것이다. 당국도 암거래나 밀반출의 한 요인을 이루는 문화재등록제등, 그보호법의 개정과 보호행정의 합리화에 一考가있어야 할것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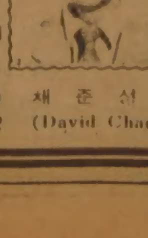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지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석
(R) (416)633 7892 (David Cha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外債 3백42억弗

8월현재 오랜 景氣침체 국제收支악화로

79년후 크게 늘어 2년8개월만에 百37억弗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됨에따라 對外債務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재무부가 國會재무위에 제출한 對外債務추이에 따르면 지난 79년말현재 2백5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빚이 82년8월말 현재 3백42억1천6백만달러로 2년 8개월사이에 1백37억달러가 늘어났다. 특히 금년들어 8월까지 국제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경상수지의 적자폭은 10억달러선에서 억제되었다고하나 같은기간중 對外채무는 17억2천6백만달러나 크게 늘어났다.

8월말현재 對外채무 3백42억1천6백만달러의 내역은 ▲장기차입 2백17억8천9백만달러▲중기 5억9천5백만달러▲단기 81억1천5백만달러▲외국은행 갑계정 37억1천7백만달러등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59년 차관도입이 시작된이래 81년까지 22년동안 2백64억3천6백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지금까지 원금67억9백만달러 이자 54억9천1백만달러 등 1백22억달러의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대부분은 72년 후 10년동안 도입됐다.

따라서 미상환차관잔액은 1백97억2천6백만달러에달한다. 또 차관총액중▲공공차관은 1백39억2천만달러▲상업차관은 1백25억1천5백만달러로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이 절반씩차지한다.

산업별차관도입액은▲농림수산부문이 23억8천1백만달러▲제조업부문이 77억8천9백만달러▲전력·도로·항만·통신·상하수도등 사회간접자본이 1백62억6천5백만달러로,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집중투자되었다.

또 외국인투자는 62년부터 82년까지 20년간 8백35건, 12억7천6백만달러가 도입되었는데 부문별로는▲농수산업이 39건 1천2백만달러▲광공업이 7백13건에 9억2천8백만달러▲금융·건설등 사회간접자본이 83건에 3억8천4백만달러로 광공업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의 對外채무추이는 별표와같다.

◇우리나라의 對外債務

(단위=백만불)

	79말	80말	81말	82·8말
長期	13,337	16,137	20,127	21,789
中期	561	617	623	595
短期	4,651	7,575	8,465	8,115
外銀甲定	1,951	3,036	3,275	3,717
計	20,500	27,365	32,490	34,216

美달러貨 최고時勢

東京換市 5년4개월만에 2백76·25엔

【東京AP UPI=聯】美달러貨는 26일 東京외환시장에서 5년 4개월이래 최고시세를 기록했다.

달러貨는 이날 일본은행이 엔貨를 방위하기위해 시장에 개입한 가운데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폐장시세는 25일의 275·75엔으로부터 0·50엔이 오른 276·25엔을 기록했다.

이같은 달러貨강세는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재할인율을 9%로 인하할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과 일부 거래자들의 투기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연탄값 계절별 差等검토

動資部 일부선 "低所得層피해"異見

동자부는 연탄값의 점진적 자율화 방침과함께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있다.

계절별 차등가격제는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싸게, 성수기인 겨울철에는 비싸게해서 연탄수요의 연중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동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탄소비량의 66%가 겨울철(10월~3월)에 집중되고있어 비수기의 연탄수요를 유발, 석탄과 연탄생산의 연중평준화를 기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이차등 가격제를 실시하게되면 여유가있는 소비자들은 싼값으로 미리사서 저장할수있겠으나 여유가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비싼값으로 연탄을사서 쓸수밖에없다는 단점을 지니고있어 동자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있다.

峨洋橋신설 着工

邱馬高速道 확장도

大邱시의 峨洋橋신설공사 및 邱馬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가 27일 착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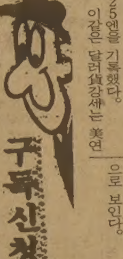
峨洋橋신설공사는 50년전인 지난 32년에 가설된 노후하고 좁은 지금의 다리를 폭 35m, 길이 2백21m로 확장하는 것이다.

邱馬고속도로 진입로포장공사는 현재의 9m 포장노선을28m로넓히는것이다.

한편 金宗鎬건설부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치사를 통해 大邱시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85년까지 제2嘉昌댐을 건설하겠으며 琴湖江 개수공사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정한 皇太子부부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26일저녁 연주회를 관람하기앞서 런던 휘트브레드·부루어리에서 개최된 한리셉션에 참가하고 있다. 【런던26日UPI=聯】


구두신창온 533-2361

「恐怖」속 스페인 總選

社會노동당 壓勝예상 "쿠데타·內戰"警告

스페인 총선거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주요정당 지도자들은 26일 수도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遊說戰을 통해 3주간에 걸친 선거 유세를 마무리 지은뒤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75년 프랑코 사후 3번째치르는 이번總選에서 펠리페·곤잘레스(40)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모든 여론조사들은 점치고 있다. 〈林鍾乾기자〉 ○○○○

이같은 예상은 과거7년동안 스페인을 통치해온 民主中道聯合(UCD)이 당내 분열로 지리멸렬한 상태에있어 더욱 짙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7·79년 두차례의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는 사회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투표결과는 UCD의 승리로 나타나 스페인국민들의 뿌리깊은 보수성향을 반영했다.

사회노동당이 승리할경우 스페인은 1939년 프랑코 군부에의해 제2共和국의 좌익정권이 붕괴된이후 42년만에 좌경정권이 다시 들어서게된다.

곤잘레스사회노동당수는 이날 마드리드시내 룸풀루텐세 대학구내에 운집한 25만명의 군중에게 『과거는 그들의것이었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고 외쳤다.

우익대중동맹당은 메이요광장에서, 공산당은 마드리드의 투우장에서 각각 유세집회를 열었지만 군중규모는 사회노동당에 훨씬 못미쳤다.

후앙·카를로스국왕은 27일 주요정당지도자들과 만나 사회노동당의 승리를 저지하기위한 군부쿠데타공포의 먹구름에 휩싸인 정치상황을 논의했다.

아돌포·수아레즈前수상은 한 선거연설에서 군부쿠데타가 內戰을 유발할것이라고경고했다.

곤잘레스당수도 좌익정부의 경험이없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위해 中道적인 입장에서 선거유세를 벌였다.

스페인 육군은 28일의 총선거에 대비, 26일 주요도시의 공공건물과 요로들에 병력을 배치, 보안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소식통은 육군병력의 배치에따라 투표소와 정치인 보호임무를 맡기로돼있던 국가보안군이 철수했다고 밝혔는데 투표당일 경찰이 경비를 맡게되리라던 당초의 발표와는달리 군병력이 투입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것으로 풀이된다.

"政治犯 수천명 被殺"

세계서 작년에, 政府承認아래 재판도없이

앰네스티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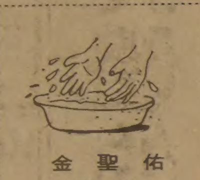
【런던AP·AFP=聯】앰네스티·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는 27일 전세계의 인권침해에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81년동안 수천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명령, 또는 승인하에 재판도없이 살해됐다고 말했다.

런던에본부를둔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실종」된사건도 있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실종과 불법살해사태에 긴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들중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때문에 여러나라에서 대규모의 정치적 살인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1백21개국가의 인권침해사례를열거했다.

메아리

씻은 손



金聖佑 〈編輯委員〉

옛날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한도오래전이라 기억이 아슴하지만 대충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외국 어느나라에 (臺灣이었던것 같기도하다) 악명높은 蕃人일당이 있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낼때 사람의 목을제물로 바치는 악습이있었다. 義人 吳鳳이 이를 말렸으나 듣지않았다. 어느날 吳鳳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某日某時에 빨간 두건을쓴 사람이 지나갈것인데 이 사람은 惡人이니 목을쳐도좋다고말했다. 과연 그날 그시간에 빨간두건쓴 사람이 나타났다. 蕃人들은 그의목을쳤다. 두건을 벗겨보니 吳鳳이었다. 그후로 蕃人들의 목베는 버릇은 없어졌다.

이 이야기는 국민학교시절 이후로 다른책에서 읽은 일이 없어 정확히 언젯적 어디서의 일인지 모르지만 교과서에 실렸으니 실화이겠다. 이 악당들의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것은 라스트·신의 삼괴한 「吳의 決算」때문일것이다. 어떤흉의 덤이를 볼때마다 두고두고 이 壯烈한 결말이 생각났다.

소매치기 전과자 한사람이 소매치기를 붙잡다가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5년전에 소매치기에서 손을 뗀 이사람은 소매치기 전과자로 이 택시를 타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내는 것을 보고 이들을 붙잡으려하자 그중 한명이 이발용 면도칼로 마구 찌르는 바람에 땅에 쓰러졌고 소매치기들은 달아났다. 그는 소매치기들이 낯익은얼굴이었기 때문에 유심히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나 맨손으로 소매치기에게 달려들었다가 피를 흘렸다. 悲壯을 없애기위해 빨간두건을 쓴 그 吳鳳의 마음이나 다를바없다. 자신이 소매치기였으므로 소매치기에게손을 댄다는것이얼마나위험한줄은 비겁한 구경꾼들보다 더잘알면서도 뛰어들었다.

그는 소매치기에서 손을씻은 사람이다. 씻은 손은 처음부터 더럽혀지지않은 손보다 덜 깨끗할것없다. 더럽히지 않은 손들은 가만히보고만있는데 오히려 씻은손이 소매치기를 붙잡으려고했다.

칼을 휘두른 소매치기는 자기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한때는 자기와같은 소매치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쨌을까. 세상은 前科者를 흘긴 눈으로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소매치기는 용기있는 시민아닌 前科者가 잡는다.

소매치기들은 자기 소매를 붙잡는것은 蠻勇의 시민일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달겨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와같은 소매치기출신이라는 생각을 하게되면,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밀어넣을 생각도, 달아나면서 칼을 휘두를 생각도 덜해질것이다.

소매치기 前科者에게서 배운것이 있다. 천하의 孔子도 大盜 盜跖에게 설교당한것이 있는법이다. 莊子는 盜跖이 孔子를 희롱한다. 孔子가盜跖을만나고올때의 모습, 수레에올라 말고삐를 잡으려다가 세번이나 놓치고 눈은 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얼굴빛은 죽은 재와 같고 수레의 나무에 기대어 머리를 떨어뜨린채 숨도 제대로 내 쉬지 못하는 孔子의 모습에서 그 소매치기 前科者가 칼에 찔리는것을 보고도 방관만하던 前科없는 市民들의 얼굴을 본다.

鏡浦호수에 철새

고니·청둥오리등

【江陵】관광지의 하나인 平陵경포호수에 예년보다 10여일앞당겨 고니와 청둥오리등 철새가날아들어 호수를 수놓고있다.

이들 철새는 3일전 부터 5~6마리가 날아들기시작, 26일 현재 80여마리로 늘어나 이곳을찾는 관광객들의발길을 멈추게 하고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이들 철새는 우리나라 첫착지인 경포호수에서 약5개월간 머무르며 영양을충분히 섭취한후 낙동강등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내년3월 중순경에는 다시 경포호수로 찾아온다.【聯】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잉카文明의 精髓 페루 國寶展

◇금으로 만든 神人像

◇금으로 된 葬儀用假面。

첫 外國文化財 전시… 男子미이라등 305점소개

잉카문명의 정수를 한눈에 볼수있는 페루國寶展이 11월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있다.

「잉카의 황금문화」라는제목의 이번 전시회에는 페루의 국보급 문화재인 금속공예품 3백5점이 나와 있다. 전시물가운데 금으로만든 장의용가면 神人像冠帽 귀걸이 코걸이 장식등은 고대원주민의 각종의식에 사용했던 공예품이다.

주발 기록 항아리등 전시유물 대부분이 황금장식물로 구성돼있고 특히 남자미이라1구는 당시의 특이한 장례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눈길을 끌고있다.

페루국보전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갖는 본격적인 외국문화재 전시.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종학적으로는 우리와같은 혈맥인 몽골리안에 속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이 남긴 고대문명에 대해서 거의 생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잉카문화란 남미 페루의 고원지방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원주민의 부족과 그지배자인 잉카족이 세운 문화로써 촌락공동체를 기초로 거대한 돌을 이용, 신전과 궁전을 세웠고 청동기와 황금을 사용,금속공예품을 제작하는등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창조했었다.

그러나 그 문화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1532년 스페인의 탐험가 피사로가 이끄는 소규모 기마병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다.

實名制로 몸살앓는 民正黨

經濟사정 달라지자 進退兩難에

記者의 눈

民正黨이 實名去來로 몸살을앓고있다.

정부와 與黨인 民正黨이 수차례 黨政協議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 발표된 實名去來制가 흔들리고 있는것이다.

지난 8월 黨政책조정을 끝내면서 『實名制가 앞으로 바꿀가능성이 있다면 5%이내에서 용통성이 있을따름』이라고 補完작업의 완전성을 자랑했던 民正黨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民正黨은 各界와시민들의 많은 의견과 여론을 들으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하게되었고 당직자들의 걱정과 불만을 內燃시켜온게 사실이었다.

당초 實名制를 주축으로한 7·3조치의 立案과정에 民正黨이 참여하지 못해 두밀대긴 했지만 자신만만한 補完작업으로 黨論을 확정했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어제의 補完자랑이 단번에 霧散」된다는 체면때문에 금방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앓듯 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26일 국회재무위에서 黨소속 崔明憲·朴鍾實의원의 留保주장을 국회심의과정을 계기로 재검토 움직임이 陽性化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정기국회를 맞으면서 民正黨은 實名制를 黨論으로 밀고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민당은 전면실시 보류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국회심의에 나섰던 것이다. 반면 民韓黨은 당초 財務部案대로 强行과 단계적 실시등으로 의견이 엇갈려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에 임했다.

이러한 各黨의 사정과 특히 民正黨내의 異見, 그리고 시행시기에 各論이 일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는 정부내의 사정 實名制에대한 보도 하나하나에따라오르내리던 증권시장들 경제계의 動向등 여러가지 복합된사정이實名制에 브레이크를걸고있는것같다.

民正黨은 『아직 결정된바는 없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따라가는것 아니냐』면서 일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 맡기려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立案되어 발표된 직후부터 爆竹같은 贊反論과함께 30여년간 경제 깊숙이 內在돼있던 문제점을 일시에 表出시켜 각광(?)을 받아온 金融去來實名制가 막상 국회심의단계에서 갈팡질팡漂流하고있는것이다.

정부가 實名制를 발표한후 民正黨의 반응은 놀라움속의 환영 「副作用우려-補完-全面手術」등으로 이어져왔다.

이시점에서 民正黨은 實名制가 張여인 사건의 再發방지 교훈으로서 地下經濟, 私債시장을 陽性化하고 金融질서를 정상화한다는등의 의의와 原則論에는 異議가없다.

그러나 경제란 理論과 원칙보다 오랜 관습에의해 유지 운영된다는점을 감안할때 ▲설비리서 넘겼다가 간신히 不況을 견디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여지가있고▲심리적불안과 實物투기 外貨도피, 地下經濟의 深化▲자금출처 不問으로 가진자만보호하고▲종합과세로 庶民과 中小기업에는 더욱 불편을주어 이래저래 경제전반을 뒤흔들우려가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으로 중대 악영향을 끼치게된다는점을 걱정하고있는것이다.

물론 확고한 黨論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朝變夕改식으로 뒤집는 것은 없는게 책임정당임을자부하는 執權與黨의 고민 이기도하다.

그러나 實名制에 대한 집권여당의 의지가 분명치 않고 태도결정을 留保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경제가 더욱 고통을 받는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民正黨은 5년전 반대의 함성이 높았던 附價稅制를 共和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功名心에 들뜬 明漢 정책 立案者의 고집으로 밀고나가 그책임을 당시의 정권이 모두 뒤집어 썼다는 역사적前例를 참고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신중한 태도는 집권당인 이상 實績을 받아야하겠지만 그때도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길고긴 토론을 거치는동안 많은 경제적 폐해가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또 附價稅가 原形을 상실하고 누더기처럼 바뀌져 5년이 지난 지금도 是非의대상이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제 實名制를실시하느냐, 유보하느냐 또는 폐기하느냐 하는 사항은 단순히 정부 경제부처의 정책으로 결정될수있는 사항이아니며 그功過가 보다높은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항임을 알아야한다.

정부와 與黨스스로의 체면때문에 立案者의 功名心이나 권위때문에 우물쭈물할문제는 아닌것같다.

責任있는 정책정당이라고 표방하고 평소의소신대로버릴것은 버리고 취할것은 취해야할때가된것같다. 【李以春기자】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김미리사 BAND-기타: 신상천
올갠: 한효상
드럼: 권순근
월~목: 오후2시~새벽2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 00AM~10: 30PM
금요일 11: 00AM~11: 00PM
토요일 5: 00PM~11: 00PM
일요일 5: 00PM~10: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 30AM~12PM
일요일 11: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8>

가스페리 伊首相

힘을갖춘 조용한 知性..赤化막아

聯政 8번이끌며 「善人의 政治」모델보여

지금까지 다루어진 지도자들은 특별하고 유니크한 시대에 속했던 인물들이다. 제2차세계대전은 현대사를 격변시킨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서유럽세력의 세계지배의 종말과 식민제국의 해체를 가져왔다.

그것은 東歐를 소련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고 무너이든 차지해놓고 보려는 소련을 세계의 초강대국의 하나로 만들었다.

2차대전과 그 뒤처리는 특출한 지도력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위대한 드라마가 연출될수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처칠, 드골, 아데나워등 戰後의 거인들외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一役을 담당했다. 그들은 덜 알려져있으며 그들의 생애는 덜 연구되었지만 그들은 여러면에서 거인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나의 엔크루마, 인도네시아의수카르노, 인도의 네루등은 유럽식민세계에 항쟁한 혁명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필리핀의 람몬·막사이사이대통령은 그의 전성기 월선이전에 그가죽지만 않았더라도 極東의 혜성 가운데 한사람이 될수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비드·벤·구리온과 골다·메이어는 팔레스타인의 사막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개척자들이다.

中東의 지도자 4사람―이란의팔레비왕, 사우디의 파이잘왕, 이집트의 나세르와 사다트대통령―은 구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조국을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쟁한 인물들이다.

여건이 달랐더라면 역사에 이름을 떨쳤을 지도자의 이름도 있다. 그들은 단지 평화시의 지도자였거나 약소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예로 싱가포르의 李光耀수상, 濠州의 로버트·멘지스수상은 그들이 영국의 수상이었다면 그래드·스톤이나 디즈레일리에 버금가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또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오히려 망각된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망각된 까닭은 그들이 평화시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아니라 지도방법이 평화로왔기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조용한 중재자나 조심스럽고 섬세한 건설자보다 요란한 선동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戰後 이탈리아수상 알치데·데·가스페리는 이 부류에 속하는 지도자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최초로 만났던 인물이기도 하다.

戰後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빈곤에 허덕였다. 절망속에서 국민들은 흔히 극단으로 치닫게된다. 이탈리아의 빈곤은 스탈린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소련은 이탈리아공산당을 강화시켜 이탈리아를 집어삼키기위해 돈을 물쓰듯이 퍼부었다.

내가 가스페리를 만난것은 1947년이었다. 당시 나는 유럽의재건문제를 조사하기위한 허터위원회의 일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쟁후 가장중요한 선거를 1년남짓앞두고 있었다. 공산당은 최대의 정당이었으며 서방측은 공산당의 승리를 예언하고있었다.

가스페리가 이탈리아 수상으로취임한것은 45년12월. 우리 위원일행은 모두 그의 힘·지성·경의에 놀라고말았다.

그는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사실 그는 파시스트시기의 많은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고 석방된뒤에는 교황청도서관에서 서기노릇과저술활동을 해온 학구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집무실은 아늑했다. 잠시이 사치스럽지도않았다. 그는 전형적인 內向型의 인물이었다. 그가 등뒤에서 사람을 욕하거나 가벼운 얘기또는 시끄러운 대화에끼어들거나 음탕한 유머를 내뱉을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않았다. 당시 그의 눈에는 蒼然이라고할만한것이 깃들어 있었다.

가스페리는 內在한힘을 발산했으며 그가 조용하게 말할수록 음성은 더욱 강렬했다.

사람들은 그가 국민과 국가와 교회에 강한 신념을 갖고있음을 감지할수 있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같은 그의 자질을 감지할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이탈리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처칠이 묘사했듯이 유럽의 下腹部는 치명적으로 뚫렸을 것이다.

가스페리는 웅변가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지만 동시에 이탈리아국민들이 首領(뭇솔리니)의 23년에 걸친 웅변에 진력이난 나머지 敎授의 강연을 더 좋아할지모른다고 생각했다.

戰後 이탈리아는 인내의 시험장이었다. 서독과 일본의경우 최종권력은 점령군의 수중에 들어있었다가 선거로 구성된 정부에 주권이 점진적으로 되돌려졌다. 이탈리아는 종전직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했다.

지독한 경제난과 공산주의자들의 야비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가스페리는 45년부터 53년까지 집권하면서 基民黨이 주축이 된 聯政을 바탕으로 내각을 8번이나 구성했다.

그의 성공적인 집권비결의 하나는 그가 정치적인위기에 쉽사리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가스페리내각은 처음엔 공산당도 포함했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정부를 내부로부터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있음이 명백해지자 그는 47년 공산당을 빼버린채 새내각을 구성했다.

그것은 놀랍고도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이탈리아를 패전의 잿더미에서 건져낸 데·가스페리수상。산책길에 호주머니가득 사탕을넣어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자상하고 조용한 지도자였다。

54세때까지 열렬한 등반애호가였던 가스페리는 한번은 실족해 밧줄에 매달려 20분간을 버티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각에서 공산당을 추방한후 이와비슷한 강인성을 견지했다.

그 결과 48년의 총선에서 이탈리아국민은 基民黨에 1천2백만표를 던져 압승케했다.

수상으로서의 가스페리는 간소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처음 수상에 취임했을때 그는 양복을 새로 마추기위해 수상月俸을 가불해야 했다.

다른 지도자들처럼 가스페리도 그의 일과를 산보로 시작했다. 산보길에는 꼼보비서를 대동했고 호주머니에는 산보길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줄 사탕이 가득했다.

저녁에는 9시30분까지 산책을했으며 종종 집무실의 전기불을 손수 껐다.

그가 수상이된후 여러해동안 그와 그의부인 프란체스카 그리고 4명의 딸은 그가 바티칸의 서기로일할때 살던 조그만 아파트에서 월부금을 내며 살았다.

그의 침실의 유일한 장식은 십자가와 성모상이었다.

수상직 첫해때의 일이다. 수상관저 이웃에 백작부인이 살고있었는데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군주제가 폐지된 것이 가스페리때문이라고 비난했다(정부형태를 선택하

首相 첫就任땐 양복마추려 假拂

기위한 46년의 국민투표에서 가스페리는 공화제의 주창자였다)。

그녀는 수상에대한 불만의 표시로 자기집 쓰레기를 수상관저에 버렸으며 밤에는 피아노를 요란하게 쳐댔다.

가스페리는 이같은 불편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편안을 주었으나 결코 富를 가져다주진 않았다.

그의 死後 이탈리아를 방문했을때 나는 그의 미망인을 찾아갔으며 그녀가 로마교외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고있음을 알았다.

가스페리는 영웅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전후세계의 영웅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정치인에게 호언장담이나 웅변이 필요치 않다는 점, 지도자는 요란하지않게 조용히 이끌어갈수있다는점, 善人은 승리할수 있다는점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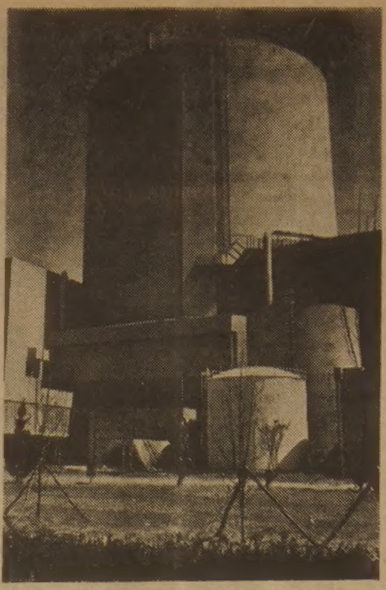
종전과 함께 이탈리아는 위험스러운 정치적인 공백상태에 직면했다. 그는 이탈리아국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한것을 제공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대신에 실용주의, 억압대신에 자유를 바탕으로한 온건하고 일관성있는 정부였다.

이탈리아의 집권당이 아직도 基民黨인 것이나 자유세계와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가스페리 덕분이다.

82년이 시작되면서 폴란드사태가 서방지도자들의 성격을 시험하고 있다.

처칠이나 드골 아데나워 가스페리가 지금의 일부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폴란드사태와 관련, 소련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86년까지 9基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따라서 이의 안전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일로 되어있다。사진은 78년 첫 상업發電에 들어간 古里原電1호기。

原子力발전 安全한가

12월月城原電 가동앞두고 專門家들의 진단

우리나라 原子力사업의 안전대책은 완벽한가。오는 12월 月城原電 가동을 앞두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사업의 안전성 기술 전반을 돌이켜 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전문가 모임이 27, 28 양일간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모임은 한국科學技術團體총연합회(회장 閔寬植)가 주최한 82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가을 워크숍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엔 ▲원자력안전기술 ▲에너지이용기술 ▲자동제어 NC기계 ▲컴퓨터이용기술등 4개 분과에 국내외 과학기술자 1천여명이 참가했다。원자력안전성기술분과 워크숍에 비친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이 당면한 안전성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洪城지진후 敷地선정 신중

耐震設計値 0.26G로높여 안전성 補完

원자력사업의 안전성문제는 부지선정에서 운전, 사용핵연료의 운반과 저장등에이르기까지 도처에 깔려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에 耐震度를 어느정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문제가 학계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78년10월 洪城지진이터진 이후부터다. 지진 안전지대로 알았던 우리나라에 실제로 진도 5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古里1호기때 보다 내진설계치를 최대 地面加速度로 따져 종전보다 0.06G큰 0.26G로 높여잡았다. 여기에서 G(gravity)란 지구중력가속도로 0.2G는 대략 벽에 금이가고 약한집은 무너질정도의 미국스케일로 진도7~8정도의 지진에 해당한다. 古里1호기때 내진설계치를 0.2G로 잡은것은 역시에 나타난 지진기록을 좀 과소평가한 감이 없지않다는 것이 당시 학계의 편이었다. 실제로 과거지진속엔 0.2G보다 큰것으로 보아야 할 규모의것이 40~50회나 된다.

그러나 역사에나타난 이들 기록은 ▲기록자체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옛날집은 약하게 지어져 피해가크게 나타났을것으로 가정했던 것。내진설계치를 0.26G로 높여 잡은것은 이같은 옛기록을 보완한 안전수치에 해당한다.

梁承珍한국동력자원연구소 답사개발실장은 그러나 내진설계치를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했다.

지진이 地表面에 미치는 영향은 지진의 크기 즉 규모(magnitude), 진앙지로부터의 깊이와거리, 지진파의 진행방향은 물론 地層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때문이란것. 그래서 지진이 미칠 영향을 數式에 따라 계산해낼수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치에 지나지않고 실제는 이같과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고했다.

梁실장은 또 학자는 지진활동을 斷層과 관련지으려는 경향이있으나 이에도 異見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斷層이라 해도 활동성이 아니면 관계없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金敎迪미국핵규제위원회폐기물연구조정관은 미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은 62년 제정된 「10CFR100」으로 불리는 부지선정 기본법에 따르고 있으나 그후 원자력발전소의 규모가커지고 세계가 많이 바뀐 상태여서 이의 개정을 논의중이라 소개했다. 개정은 카터대통령이 위촉한 케메니(Kemeny)교수의 이른바 케메니보고서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이에도 논란이 계속 일고있다고 설명했다. 金박사는 현재 미국엔 91개소의 원자력발전소부지가 선정되어있다면서 이를 정할땐 ▲사람이 부지안에 일체 거주치 못하도록 하고 ▲반경3.2㎞안엔 거주인구를 제한하며 ▲반경48㎞까지 인구동태를 파악통제하는가하면 ▲일정지역에 밀집해서 거주치못하도록 제한하는등 까다로운규정을 적용하고있다고했다.

金박사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의 규정이라며 한국과같은 나라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부지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사업에서 방사능방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는것은 심심찮게 세계도처에서 원자로사고가 일고있기 때문。

기록에 남을만한 큰사고만해도 ▲52년 캐나다의 NR사고 ▲57년 영국의 윈드스케일사고 ▲58년 유고슬라비아의 보리스·키드리히사고 ▲61년 미국 아이다호의 SL-1사고 ▲71년 같은 미국의 브라운·페리사고와 ▲유명한 79년의 TMI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대략 5년에 1회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원래 원자력사업의 기본정책은 다중방어 개념에서 출발하고있다. 그래서 설령 사고가난다해도 인명피해가 당장크게나는 대형사고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원자로사고는 죽음의재인 방사능을외부로 내뿜을수있어 두고두고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가져다줄수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쓰고난 核燃料처리 큰문제

5년周期로 세계적 큰 事故

文錫亨한국에너지연구소원자력안전센터 방사선안전관리전문위원은 우리나라도 이같은 원자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가적차원의 방재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文박사는 원자로에 사고가 났을때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기체상태의 방사성이라며, 눈에 보이지않고 냄새도 없는 기체상태의 방사능구름을 빨리 발견 제거하고,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할것이라 했다. 이를위해 ▲통신시설의 보완 ▲실시가능하면서 최신기준에 맞는 주변방재 방사능방재계획 ▲주변방사능측정에 필요한 기기와 시설보완 ▲전문의료기관과 진료요원의 확보및훈련등이 있어야 한다고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역시 중요한 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古里1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비, 10년분을 저장할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있다. 古里1호기는 78년 가동에 들어간후 3회에 걸쳐 핵연료를 교체했다. 매해 대략 전체핵연료의 3분의1인 16톤씩 핵연료를 교체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이 저장시설 속엔 48톤정도의 사용후 핵연료가 들어차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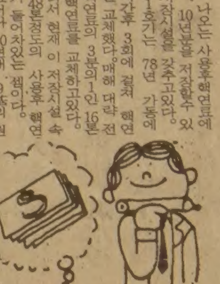
그러나 80년대 9基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경우 사용후 핵연료처리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아직 우리는 이에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美워싱턴에서 열린 韓·美원자력및 기타에너지 상설위원회에서도 이문제가 우리나라쪽에서 제기되었으나 미국측은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梁昌淳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는 앞으로 다칠 사용핵연료의문제와 저장과정에서 이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실정에맞는 수송용기의 제작과 이에연관된제반규제법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했다. 【李光榮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광고문의

533·2361

中共의 亡命病

잇단 事件에 指導層 당황

開放정책 規制 할지도

8천여 美유학생에 번질까 더 신경

중공조종사가 미그19機를 몰고 한국으로 탈출한 사건은 최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의 망명사태에 뒤이어 일어난것으로 중공지도층은 크게 당황하고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같은 망명사태는 중공의 문호개방정책마저 위협할 가능성마저있다고 내다보았다.

지난달 대만을 비판했던 중공저명작가 魯迅(본명周樹人)의 손자 周令飛가 대만으로 탈출, 그곳에서 대만애인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앞서 지난7월에는 테니스선수인 胡娜양(19)이 美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고 미국은 胡양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이와관련 중공실권자인 鄧小平은 24일 胡양의 미국망명은 『추잡한 계교』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미국은 믿을만한 동반자가아니라고 불평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추세로 보아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8천여명의 중공학자·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1진이 귀국할 무렵엔 무더기 망명사태가 나지않을까 중공당국은 긴장한것 같다.

북경주재 美대사관은 얼마나 많은 중공유학생들이 결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체류연장, 또는 정치적 망명을 통해 중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지 알수 없으며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중공의 현대화에 필요불가결한 이들 젊은 유학생이 귀국하지않고 해외에계속 체류하거나 대만으로가는쪽을 선택한다면 그파문은 심각한 결과를 몰고올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아직 중공은 해외파견유학생이나 사절단의 규모를 줄인적은 없으나 해외로나가는 인사에대한 규제는강화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에 胡양의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으로 탈출한 吳榮根소령에 대해서는 훈련도중 교신이 끊겼다는것외에는 논평하지 않았다.

중공은 또 79년이후 국비로 東京에서 TV생산부문을 연구하고 귀국하려던 周令飛에 대해서는 입을다물고 있다.

◇중공저명작가가 魯迅의손자인 周令飛와 신부 張純華。

◇胡 娜양

중공당국이 魯迅을 중국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대만의 국민당정부를비판한 위대한 작가라고 찬양해왔었기때문에 그손자의 탈출은 큰 충격과 당혹감을 던져주었다.

『周씨가 대만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에 중공고위지도자들은 상당히 격노했다』고 한중공소식통이 전했다.

『나는 그가 왜 망명했는지 알 수없다』고 周씨의 한 친구는 말하고 周씨는 중공군의 사진작가로근무하면서 가끔 외국인에만 주어지는 특권마저 누렸었다고 털어놨다.

한 중공관측통은 『나는 일련의 망명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공식적인 해외파견사절단의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해외나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원하는 중공인은 이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외여행신청자는 먼저 지방공안국 또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아야하는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6개월전 중공당국은 차관급이상의 고위층자제에 대한 해외유학을 금지시켜 해외유학이 정치문제로 번지기까지 했었다.

현재 鄧小平의 아들등 많은 고위관리자제가 미국등 외국에서 공부하고있다.

따라서 고위층자제의 해외유학금지조치는 이미 많은 고위층자제가 해외에 나가있기때문에 부당하다는 고위관리들의 반발이 있었다.

해외유학중인 고위층 자제에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정규적으로 보고서를올리도록 해외 중공대사관에 지시가 내려져있다.

그러나 한정치국원의 아들이 한때 워싱턴주재중공대사관의 점검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 중공지도자들은 늘어나는 망명사태와 자신의 문호개방정책 사이에서 고민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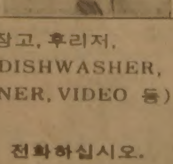
【北京AP聯合=特約】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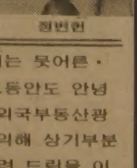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저를 아끼시는 뭇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재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정번헌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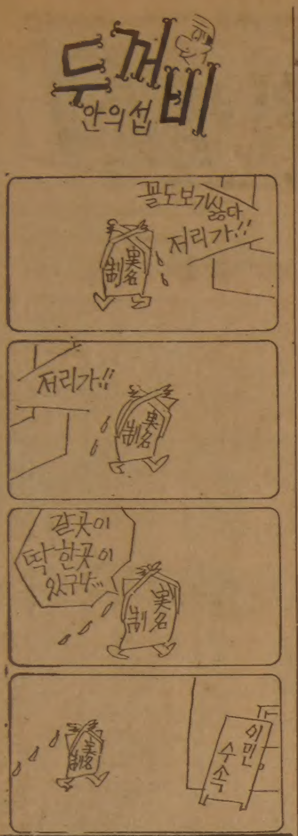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4억臺 가짜휘발유 量産

전직 警察간부가 社長

工場급습 百드럼압수

百%가짜 中間商통해 팔아

휘발유는 한방울도 섞지않은 1%「가짜휘발유」를 만들어 전국에 팔아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범죄조직의 두목이 지난 75년 소매치기계의「대부」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서울시경 형사과 金學先경위(55)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금까지 적발된「가짜휘발유범죄」는 진짜휘발유에 값싼 솔벤트나 벤젠을 적당히 배합해 휘발유로 속여 파는 수법이었는데 이 가짜휘발유는 휘발유를 전혀 섞지도 않고 휘발유대용품을 만들어 판 신종수법이다.

서울지검 수사과는 27일 서울江西區傍花洞 金씨의 가짜휘발유제조공장을 급습, 사장 金學先씨와 전무, 상무 등 4명을 연행조사하는 한편 가짜휘발유 1백드럼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金씨등은 ▲솔벤트5드럼▲톨루엔이나 벤젠 또는 키시렌4드럼▲메타놀1드럼▲IPA 0·25드럼의 비율로 배합, 가짜휘발유10·25드럼씩을 제조해 전국 중간상에 판매해 왔다는 것.

전국에서 휘발유를 사간 중간상들은 휘발유가 아니라는것을 뻔히 알고도 사갔는데 중간상들로부터 가짜휘발유를 주유한 운전사들은 모두 남의 차를 운전하는 택시나 트럭 운전사들인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중에서 휘발유1드럼(2백ℓ)은 14만원인데 金씨는 가짜휘발유를 드럼당 7만원에 팔아왔다.

검찰은 金씨가 지난7월이 공장을 설치한후 지금까지 6천드럼(싯가4억 2천여만원)을 제조, 판매했다고 말하고있으나 1일장부를 남기지않아 드러난것 보다 더 많은양을제조, 판매한것으로 보고추궁중이다.

검찰은 金씨가 위험물저장허가를 받았음을 중시, 허가경위를 캐는한편 중간상조직에 대해 수사를확대하고있다.

한편 검찰은 가짜휘발유를 휘발유라고 속이고 휘발유값을 받으며 판매했다면 사기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휘발유를 전혀 섞지 않은채 대용휘발유를 제조·판매해왔고 사간사람들 역시 휘발유가 아닌것을 알고있었다는점으로보아 金씨가 교묘히 법망을피하기위해 신종범죄를 착안해낸것으로 보고있다.

휘발유가 아닌 혼합물질을 사용할 경우 연소점이 서로 달라 자동차엔진의 수명이 짧아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金씨에게서 휘발유대용품을 사간 사람들은 자기차가 아니므로 차주에게서 받은 휘발유값과의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채왔고 金씨는 이점을 이용, 자신이 배합한 휘발유대용품의 원가에 웃돈을 얹어 팔아온것을 보고있다.

金씨는 지난75년 소매치기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받으며 뒤를봐준 혐의로 서울지검에의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3년, 2심에서 징역7년을선고받고 76년 4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82년초 출소했다.【崔奎植기자】

◇公害뿜는 廳舍는 추위가닥치자 검은「공해」를 내뿜기시작한 정부종합청사。추위가 다가옴에따라 대형건물에서 내뿜는「겨울철 死神」연탄가스와함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우울하게 만든다。

가스死神 벌써 11명앗아가

全國서 이틀간 신혼夫婦도 中毒숨져

날씨가 추워짐에따라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급격히 늘어나 26·27일 이틀동안 전국에서 60대 노부와 신혼부부등 11명이 숨졌다.

▲26일하오6시30분께 서울九老區開峰2洞202의15 李殷甲씨(59·여)집 지하실방에 세들어사는 趙惠榮양(20·무직)과 成宗군(18·安養공고3년) 남매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

▲26일 상오7시50분께 서울冠岳區奉天7洞1603의1 배종근씨(35)집 1층부엌방에서 잠을자던 배씨의조카 윤명자양(19)이 연탄가스에중독, 신음중인것을 배씨가발견, 병원에옮겼으나 숨졌다.

▲27일상오 8시35분께 大田市東區板岩洞27 김부순씨(62)집 건넌방에 세들어사는 이회순양(22·회사원)이 신원을 알수없는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잠자다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것을 주인 김씨가 발견, 충남대 부속병원에 옮겼으나 이양은 숨지고 친구는 중태이다.

▲또 이날상오 7시15분께 大田市中區宣化洞164의3 김원웅씨(43)집 안방에서 잠자던 김씨와 부인 이상자여인(42) 장남 재광군(10) 차남 재호군(6)등 일가족 4명이 방문틈으로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돼 大田을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26일상오6시30분께 大田市中區牧洞165 홍금표씨(45)집건넌방에서 잠자던 홍씨의 어머니 안금례씨(68) 조카 수진양(4)등 2명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 大田을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 모두 숨졌다.【大田】

▲26일 하오7시께 충북淸州市開新洞131의4 박민섭씨(35)집 건넌방에 세들어 자취하고있는 충북대 기계과2년 김정균군(20)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져있는것을 친구인 박영철군(19·충북대2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淸州】

▲27일상오 8시30분께 강원도江陵市魯岩洞 5통3반 최호림씨(62)집건넌방에세들어살던 양희섭씨(64)와 부인유학실씨(67) 노부부가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江陵】

▲27일상오8시께 충북堤川市龍頭洞2통2반 김영태씨(45)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행온 김씨의딸 숙정씨(22)와 사위 김봉준씨(27·全州市西老松洞712의3) 전넌방에서 잠자다 문틈으로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釜林사건 被告 16명 原審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釜林사건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李相錄피고인(27·무직)등 16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최고 징역6년 자격정지 6년에서 최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1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현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그 여건조성을 위해 학생·노조원·광부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되풀이하고 공산주의 책들을 교재로 삼아 탐독했으며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하는등 학원데모를 주동한혐의로 지난해 10월15일 구속기소됐었다.

"北韓은 對話재개 誠意를"

金총리 韓赤77돌에 / 유공자 65명에 각종포장

金相浹국무총리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77주년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키위해 南北적십자사간의 대화재개를 거듭촉구했다』고 상기시키고『북한측은 민족적양심과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해 하루속히 대화재개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줄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金총리는『대한적십자사에서 전개하고있는 많은 사업가운데 특히 우리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南北이산가족의 재결합을위한 노력과 해외동포의 모국방문을 후원하는 사업은 세계우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상오 10시 서울城東區馬場洞소재 한적서울지사청소년적십자회관에서 거행됐는데 그동안 적십자사업에 기여한 徐英勳전적십자사총재등 65명의 인사가 각종 포장을, 그리고 76명의 유공자에게는 감사장과 표창장이 각각 수여됐다.

住公국민住宅 투기 48명 무더기立件

【大邱】최근 지방도시에까지 부동산투기붐이 확산돼관련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도경은 27일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5월 분양한 구미공단의 국민주택 단지내 10~15평형의 연립주택 1백52가구분을 대상으로한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일제수사에 착수, 분양받은 사람중 전매 또는 임대행위를 한 김태수씨(44·구미시 원평1동964의14)등 48명을 가려내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5명은 20만~1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으며 나머지 43명은 1백만~4백만원씩의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는것.

이 연립주택중 15평형을 기준으로 볼때 주택가격 1천만원중 입주금은 3백66만원이고 19년 동안의 월평균 상환금이 6만원이어서 3백만~4백만원에 임대를주면 이자만으로 월부금을 낼수있기때문에 입주금만으로 주택을 투기할수 있는결과가 된다.【聯】

釜山…遮水壁 설치않고 地下鐵공사

국교教室 붕괴위험

【釜山】부산시 東萊區 靑龍洞 청룡국민학교가 부산시에서 시공중인 지하철공사로인해 본관 14개교실중 6개교실이 1백여곳이나 틈이생기고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실을 폐쇄하고 4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하는등 소동을 빚고있다.

27일 학교측과 부산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18공구 공사를맡은 南光土建측이 靑龍洞지하철정거장 공사를하면서 지하수를 막는 차수벽을 설치하지않고 무리한 공사를하는바람에 지난 15일께부터 공사장에서 10여m 떨어져있는 청룡국민학교 목조2층본관 벽 곳곳에 폭1cm 길이 1~3m가량의 금이생겨 학교측은 5학년1, 2반 6학년4, 5, 6, 7반등 6개교실 통로에 위험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고 교실을 폐쇄, 2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하던것을 4학년까지 2부제수업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이학교는 본관과 서관2개 건물에 학생2천3백여명을 수용하고있는데 균열이생긴 본관건물은 23년전에 지은목조이다.【聯】

過速택시 충돌 승객등 둘死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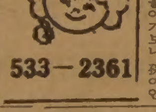
【釜山】26일 밤11시30분께 부산시海雲臺區石捨洞앞 거리에서 삼성교통소속 부산1바6433호 영업용 택시(운전사 하석국·33)가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사 하씨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 이순자씨(37·여 海雲臺區盤松3洞1123)는 중상을입고 東萊대동병원에서 치료중이다.【聯】

식료품店 여주인 안방서 被殺

【木浦】27일새벽6시께 전남木浦市竹橋2洞76 속칭 된개시장내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孫相任여인(40)이 가게안방에서 흉기에 이마를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건너편 가게주인 金英子여인(35)에 따르면 새벽6시가되어도 孫씨의 가게문이 열리지 않아 이상히 여기고 문을열고 들어가보니 孫여인이 이마에 흉기가 꽂힌채 숨져있었다는것.

孫여인은 26일자정께 가게문을 닫고 홀로 가게에서 잤는데 방에 벗어놓았던 돈주머니가 달린 앞치마가 없어졌다.【聯】



醫保 피부양자 認定범위확대 내달부터

孫子카드로 祖父母혜택

오빠없는女性의 부모도

의료보험혜택이 할아버지·할머니에게까지 확대돼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된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아들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종전의 피부양자자격인정 범위를 대폭넓혀 아들이 생활능력이 없거나 정년퇴직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경우에는 손자(장손)의 보험카드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도록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아들이 55세이상인경우 ▲정년퇴직한경우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교도소에 복역중인경우 ▲행방불명등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을때는 장손의 보험카드안에 할아버지·할머니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년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되는 근로자들은 아들의 보험카드에의해 부모가 함께 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 됐다. 이로써 장손이 자녀가 있을경우는 한보험카드로 4代가 혜택을 볼수있게된 셈이다.

한편 보사부는 그동안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자격인정이 복잡해서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것을 해소하기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주로생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해당 조합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법적자격 유무를 따지지않고 그가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키로했다.

보사부당국자는 이같은 인정권을 각보험조합에 일임하되 인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여성근로자(장녀)가 오빠가없거나 오빠가 있더라도 20세미만인경우에는 이여성근로자의부모·조부모및 동생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울릉도 침몰漁船 LP가스통이었다 발견했다던표류屍

【東草】속보=울릉도 동북방 80마일해역에서 오징어잡이하던중 침몰한 제1동해호(92톤·선장 이덕성·33)의 실종어부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는 동해어로 보호본부는 지난26일 한국수색대가발견, 연락했던 시체2구는 시체가아닌 LP가스통 2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로보호본부는 27일 하오 이같이 밝히고 사고 4일이 지난 이날까지 시체 1구와 LP가스통 2개를 인양했을뿐 수색작업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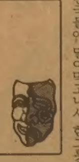
학교金庫 깨고 3百萬원 훔쳐

【群山】27일새벽0시부터 상오7시 사이에 群山서해공전 서무과에 도둑이들어 사무실의 대형금고뒷면을부수고 금고안에 들어있던현금 1백10만원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9매, 7만원짜리 가계수표 1매, 캐논 카메라 1대(시가 14만원)등 모두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달아났다.【聯】

「라면 할머니」

赤十字봉사章받은 李南善씨

날마다 奉仕의 기쁨이 새록새록



대한적십자 창립77주년 기념식전에서 적십자봉사장(은장)을 받은 李南善할머니(61·사진)를 부산지방 근로청소년들은「라면 할머니」라고 부른다. 라면할머니는 야간학교 등교시간인 하오4시30분이면 어김없이 부산시南區근로청소년 급식소에 나타나 라면을 끓여 청소년들을 먹인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시달린 근로청소년들은 야간학교에 등교하기전에 이 급식소에 들러 라면으로 배를채운다. 먹성들이 어찌나 좋은지 싸가지고온 도시락을 라면국물에 말아먹고나서 한그릇을 더 달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뜨거운 라면의 김이 급식소 안에 자욱하고, 여기저기서 후르륵 거리며 라면을 빨아들이는 근로청소년들의 왕성한 식욕은 자라나는 세대의 힘과 열기를 느끼게한다.

라면할머니의 적십자 봉사경력은 무려25년이다. 남의「답답한 꼴」을 참고보지 못하는 성미가 남을위해일하도록만들었다. 오오무라수용소에 갇혀있던 불법출국자들이 풀려나 부산에 왔을때는 그들의모습이 한도 측은해 부엌에모아두었던 누룽지를 싸들고나가기도 한 순정파다.

남을위한 봉사는 돈이나 입발림으로 하는것이 아니라「정성」하나로 하는것이라고 할머니는 항상 다짐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부인들이「하루에 얼마받고 하는일이냐」고 물어올때는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그들이 가여울 뿐이다.

6남매가 모두 장성해서 이제는 노부부가 작은 과수원을 가꾸며 살고있는데 낮에는 봉사활동을하는데서 보람을찾는다. 나무손질은 주로 밤에한다.

라면할머니의 급식소는 겨울이 한철이다. 하루종일 거리나 직장에서 시달리던 청소년들이 이할머니의 급식소에서 허기를때우고 몸을녹인후 훈훈한 마음으로 학교로 간것이다.

『봉사는 남을 위한다는점도있지만 내스스로 좋아서 합니다. 봉사의 기쁨은 봉사하는 사람만 아니까요』

내년에는 바닷가쪽으로 집을옮겨 바깥어른이 좋아하는 바다낚시를 실컷 하게하고 자신은 자욱한 라면의 김속에 늙어가겠다는게 할머니의 새 계획이다.【金薰기자】

비타민 · 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자개전문가구"
La Maison Nacrebec Inc.
금년말까지 교민들께 도매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응접실 각종 테이블, 바-아 셀트, 부페 셀, 침대 셀
⊙자개의 멋과 품위를 이용한 "현대식 서양가구"

※지역 대리점이나 쎄일즈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요망.
공장 : ☎1-514-527-1403
집 : ☎1-514-374-2846
4297 FRONTENAC MONTREAL, QUE.
대표 강유수

프로복싱

실컷 얻어맞은 金相賢에 "無勝負" 판정

엉터리 판정이 또 한차례 큰 물의를 빚었다.

24일 부산 구덕체육관서 벌어진 프로복싱 논타이틀10회전서 OPBF 주니어·웰터급 챔피언 金相賢은 필리핀 동급챔피언 루벤·라바고와 맞서 고전끝에 10회들어 왼쪽 어퍼컷을 턱에맞고 녹·다운, 열세였으나 심판진은 석연치않게 무승부 판정을 내렸다.

관중들은 판정결과가 발표되자 『엉터리 심판물러가라』며 야유, 심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판정내용을보면 주심 金孝坤씨가 98-97로 라바고 우세였고 부심李判允씨와 李在壽씨가 각각96-96, 97-97로채점, 무승부가 됐다. 엉터리 판정이 속출, 프로복싱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대해 관중들은 『물의를빚은 심판을 귀루위가 처벌하는것만이 능사가아니며 양식을갖춘 신진 심판들을육성하고 기존 심판들에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得九

화제

來13일 美서 맨시니에 挑戰

金得九, "KO로 勝負"

强訓에 두뺨홀쭉…"프로복싱 7連敗막겠다"

두뺨이 홀쭉하다. 미소도 얼굴에서 사라졌다.

오는 11월13일 美國라스베이가스에서WBA라이트급 챔피언 레이·맨시니(21·미국)에게 도전하는 金得九(21·OPBF동급 챔피언)는 마무리 훈련에 힘을 쏟고 있다. 金은지난1일 세종호텔에 훈련캠프를 설치하고 고행의 하루하루를보내고있다. 상오9시세종호텔을 나서 하이야트호텔-남산순환도로를 돌아오는 14㎞의 로드웍이 첫 일과다.

로드웍을 마치면 해머치기를 1백회 한다. 이두가지 훈련은 체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헬즈클럽을찾아 밀어내는 연습에 열중한다.

하오에는 매일 20라운드가량의 연습을 한다. 10월부터 지금까지 80회의 스파링을 가졌다. 미국으로 출발하는 11월2일까지는 1백20회의 스파링을 마칠 계획이다.

잠시 쉴때에도 악력기로 손아귀의 힘을기르고 내공훈련도 쌓고있다. 잠자리에드는 시간은 새벽1시30분. 11월초에는 새벽 3시에자고 상오11시에 일어날 계획이다. 라스베이가스와의 시차에 적응하기위한것이다.

맨시니의 대전필름도 입수, 작전을 구상하고있다. 맨시니는 24승(19KO) 1패의 기록이 말해주듯 펀치력이 뛰어나다. 스윙이 큰 라이트훅에 특히 조심을해야한다. 그러나 스피드와 기교가 떨어진다는 약점도 아울러 갖고있다.

金得九의 기본전략은 첫 라운드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KO승부를 걸 예정이다.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맨시니의 오른쪽 훅.

KO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때에 대비, 포인트작전도 구상하고 있다.

金得九의 매니저 金賢治씨는 이번 대전에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있다. 『得九는 배가 고파본 경험이 있어 혼이 살아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자세를 갖고있으며 머리회전이 빨라 순간순간 기지에넘친 플레이를 펼친다』

金得九는 현재 63㎏의체중을 유지, 체중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있다. 『한국프로복싱 7連敗의 행렬을내 앞에서 멈추게 하겠다』金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인다. 【金仁奎기자】

起死回生해 "우리팀이 이겼나"

體典축구準決 콩팥破裂 河德潤

大宇우승에 감격

◇河德潤

전국體典경기중 부상으로 목숨을 잃을뻔했던 축구선수 河德潤(23·大宇소속)이 기사회생, 건강을 되찾고있다.

河선수는 지난18일 전국체전 축구일반부 준결승전에서 現代자동차(慶南)와 대전중 동점골을 터뜨린후 경기종료8분을 남기고 슛을 날리는순간 現代수비와 심하게부딪쳐 실신했었다.

들것에 실려 馬山고려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河는 왼쪽신장(콩팥)파열로 3시간동안 콩팥한쪽을 제거하는 대수술끝에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다.

그는 다음날 의식을 회복하자 『우리팀이 이겼느냐』며 말문을열었는데 체전서 우승한 大宇의 張雲洙감독과 동료선수들은 그의 목에 金메달을 걸어주었다.

현재 고려병원 707호실에서 퇴원날을 기다리고 있는 河선수는 경남南海출신으로南海雲川중학을거쳐 慶南商2년때 서울大新高로 전학, 축구선수가됐다.

河선수는 77년 大新高3년때 장신골게터로 활약하며 춘계연맹전과 대통령배대회 패권을 차지하는데주역이되었고 檀國大를거쳐 지난해 大宇에 스카우트되어 실업리그에서 5게임연속득점기록을 세워 득점상을 받은 우수선수.

河선수가 중상을 입고병원에 입원하자 釜山시체육회는 수술비와 치료비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동생 德徽군(20·仁川大1년)은 병원에 달려와 『내콩팥하나를떼어내더라도 형님은 운동을 계속해야한다』며 따뜻한 형제애를보였다. 【釜山=聆】

老人 齒科진료는 신중히

高血壓등 成人病 미리 체크해야

◇노인의 치과질환 치료엔 고혈압등 노인특유의 병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50세넘으면 80%가 齒周炎

흔들려도 큰不便없으면 그대로 두도록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노인성 치과질환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는 마침 UN이정한 노인의해. 대한 [illegible]회(회장 金東順)는 지난 22·23양일간 서울 리틀에인절즈예술회관에서창립61주년기념 제34회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노인치과진료의 문젯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가졌다. 노인의 치과진료에 알아 둬야할 유의점을 서울대치대 [illegible]교수 (구강진단과) 孫性喜교수 (치주과) 金昌會교수 (보철과) 에게 알아 보았다.

노인의 치과질환을 치료할때 세심한 치료계획을 세워야한다. 노인의 상당수가 고혈압·동맥경화·심장병과같은 순환기질환을 비롯해서 폐와 기관지등 호흡기질환과 당뇨병등 각종 노인특유의 성병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혈압이 최고 (수축기혈압) 2백, 최저 (확장기혈압) 1백15이상이면 치과치료를 하기전에 먼저 혈압을 낮추는 내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각이 심하고 혈압환자가 아니더라도 고혈압증이 있으면 치과치료 자체가주는 스트레스를 가능한한 줄여야한다. 국소마취제는 혈관수축제가 들어 있게 마련이어서 이역시 양을가능한한 줄인다.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이(齒)를 뽑거나 약물을 투여할때 특히 조심해야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심부전증환자는 물론 전에 이같은 증세를 앓았던 사람도 치과치료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병을 악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면 6개월 이내엔 치과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흔한 치과질환은 잇몸병이다. 잇몸의 연한조직(軟組織)에 염증이 생긴 치은염(齒齦炎)은 6살이 되면 벌써 38% 사춘기엔 62%가 앓고있는 실정이다. 치은염은 사춘기가 지나 20대가 되면 이환율이 좀 떨어져 57%가 되었다가 35세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40대 70%, 50대가 되면 80%정도에 이른다. 치은염은 통증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지나치는수가 많아 악화되게 마련이다. 이를 닦는다든지 사과 같은 것을 베어 먹을때 피가 묻어나오면 일단 치은염을 앓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치은염이 악화되면 치주염(齒周炎)이 되는데 치주염이란 잇몸과 이를 지탱하고 있는 치조골(齒槽骨)주위 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치주염이 되면 이가 흔들리고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치주염이 미흡하게 되는 원인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손치로 해서 이를 뽑게 되는 경우는 35% 나머지 15%는 교정이나 보철을 하기위해서 빼는 경우와 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젊은 사람의 치주염은 수술을 해서 철저히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엔 조직이 파괴된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보존치료를 한다. 흔들리는 이(齒)라해도 씹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뽑지 않고 그대로둔다. 노인의 치주병은 젊었을 때의 구강관리가 좌우하게 마련. 따라서 35세 이후엔 1년에 3회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잇몸병이 있을 경우 조기에 손을 써야한다. 35세이후 일단 치은염이 확인되면 석달에 한번씩 정기검진을해서 치료받아야한다.

노인의 구강조직은 젊은사람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구강점막(粘膜)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가감소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다. 골조직도 흡수가 심해 틀이(義齒)를 하려할때 안정되지 않기 때문. 노인이되면 또 혀(舌)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문에 틀이가 안정을 찾기 힘들어 진다. 맛에 대한 감각(味覺)도 떨어진다. 노인이 될수록 짜고 매운것을 찾게되는 것은 이때문인데 노인 자신은 미각이 둔해진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이때 틀이를 하게 되면 구강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져 틀이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게된다. 노인이 되면 또 침(唾液)의 분비량도 떨어진다. 침은 입안에서 청소와윤활작용, 정작작용을 동시에 갖고있는데 분비량이 떨어지면 자연 이들 기능이 약해진다.

노인일수록 틀이에대해 여러가지 불편과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것이 좋다. 입이 마르는 증세가 심하면 신맛을 내는 캔디를 빨아 먹는 요법을 쓰기도 한다. 【李光奎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2>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⑲

『좀 더 큰 가방 없나?』

여행용 숄더백에다 세면도구와 팬티 러닝셔츠를 각각 두장씩 챙겨넣은 수지를보고 기욱이 말했다.

『이번엔 얼마나 걸리는데요?』

『석달쯤』

『석달씩이나요?왜 진작 말해주지않은거죠?』

『말했어』

기욱이 입술을 비쭉하며 딱잘라 말했다.

『말하지않았어요. 난 못 들었으니까요』

수지도 지지않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흥, 편하군. 자기가 귀담아듣지않은 말은 다없었던 말이라?』

『당신 정말 왜 그래요. 내가 요즈음 좀 바빠서 집안일을 건성으로 한건 사실이지만 설마 남편이 석달씩이나 출장간단소리를 무심히 듣고 잊어버렸겠어요?』

『꼭 어느날부터 어느날까지라고 말해야만 알아듣나? 우리회사에서 기술제공해서 그쪽에 세운 공장이 다돼서 시험가동에 들어간단 얘기 했어. 두달남짓 시험가동을 거치고나서 준공식이 있을거란 얘기도 했고, 가면 준공식까지 보고온단 얘기 몇번이나 했을걸. 밤늦 짐 싸달라면서도 했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부정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계략에 의해 함정에 빠진것처럼 억울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와 광으로 쓰는 뒷방문을 열었다. 시집올때 해가지고 온 지금은 구식이 돼서 물러나있는 장롱, 구형 전축 신문 잡지뭉치, 남이 사니까 덩달아 샀으되 끌러보지도않고 상자채 싸인 그릇 남비세트, 이불, 방석 보따리등 모두 제자리에 조용히 먼지를 한꺼풀 뒤집어쓰고 놓여 있었다. 그방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였다. 그 변함없음이 되려 기이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 방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 속에 잔뜩 괴어있던 시간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참아야돼. 그녀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다.

『뭘하고 있어?』밖에서 남편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데도 그 방안의 오래 묵은 정적을 통과해서 들리는 소리는 귀에 설어서 그녀는 이유가 분명치않은 두려움을 느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기욱이 뒷방문을 열었다.

『마땅한 가방을 찾으려구요. 여름옷도 이 방에 있잖아요』

그녀는 자기가 둘러댄 말이 스스로 대견해서 조금 웃었다.

기욱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더니 장롱위에서 바퀴달린 대형 여행백을 들어내렸다.

『이만은 해야될 걸』

수지는 예고없이 들이닥친 방문객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겁먹은 얼굴로 장롱서랍을 열고 그안의 여름 내의랑 남방셔츠를 닥치는대로 꾸역꾸역 쑤셔넣기 시작했다.

『집이 왜 이렇게 으시시하지? 정안붙게』

『보일러를 틀어 고칠까봐요. 워낙 오래 됐잖아요』

수지는 불쑥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화끈한 열기가볼을 타고 목고개로 번지는걸 느꼈다.

『내 말은 우리집 실내온도를 말하는게 아냐. 당신하고 나사이 말이지』

『그게, 그게,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싶은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채 말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베를리우 IOC總長 내한

88서울올림픽등 준비 協議위해

◇베를리우女史

모니크·베를리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무총장(57·사진)이 88서울올림픽대회 준비현황등을 협의하기위해 24일하오 KAL편으로 내한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의 초청으로 방한한 베를리우사무총장은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李源京체육부장관을 비롯, 金溶植SLOOC위원장·鄭周永대한체육회장등을 예방하고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IOC의 실무총책임자인 베를리우 여사는 프랑스인으로 지난71년 IOC사무총장이된래 11년간 IOC살림을 도맡아온 국제스포츠계의 중진인데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홍콩大破 2승

아시아都市 女농구

【홍콩=聆】제1회 아시아도시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서울팀은 26일밤 맥퍼슨경기장에서 열린 2일째 경기에서 홍콩을 109-50으로 대파, 2연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홍콩을 맞아 초반부터 큰 점수차로 리드했으며 후반종료 3분을 앞두고 1백점을 기록했다.

최다득점선수는 23점을 올린 金恩淑이었다.

◇제2일전적

서울 109 (48-20, 61-30) 50 홍콩
(2승) (2패)

북경 82-64 도쿄
(2승) (1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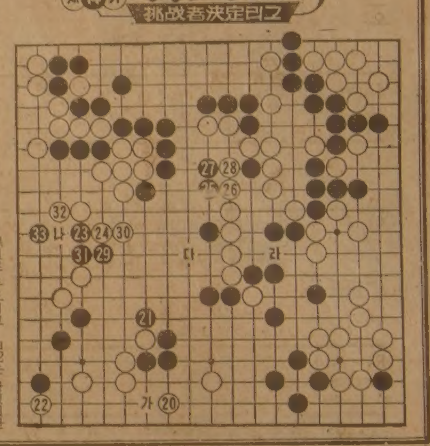
판탄 75-64 마닐라
(1승1패) (2패)

名人戰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2局第8譜 120~133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盧永夏
黑 (6段) 張秀英



짓밟힌 白大家

지금까지의 형세를 말하면 白이 우하귀黑집을 뚫어낸데서 절대우세, 실리면에서 약20집이나 黑을 앞서게 되었고 전보 白20의 시점에서도 그런 양상은 변함이 없어보였다.

그런데 실은 이 白20이 호사다마격인 과욕이었던 모양이다. 한두집이라도 이기면되는 바둑이다. 따라서 약간의 손해는 불망정 아직도 未生然한 중앙白대마도 보강하는 뜻에서 20은 21자리에 뻗어놓아야 했던것이다.

『그래서 비록 黑「가」혹은 20을 허락하더라도 白22에 붙이는 수를 본다』고 趙南哲8단은 해설하고 있었다.

黑21로 두드리고 白22는 당했지만 바로 이때부터 張6단의 날카로운 수단이 발동된다. 우선 장족 폼을 들인 黑23이 기상천외의 수였다. 이른바 聲東擊西, 다시금 중앙白대마를 은근히 노리기 시작한다.

黑25, 27로 근거를 빼앗고 29에 젖혀 白30을 강요하더니 黑31. 아차아차 할 사이에 좌변白집이 짓밟히고 말았다.

이동안 盧7단은 좌충우돌하는 黑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몹시 괴로운응수를 거듭해야 되었다.

"그런데 白30이 패착이라는 국후총론. 이수는 「나」로 물아 黑30때 白「다」 또는 「란」 에끼워서 제자리삶을 피했어야 (이뒤의과정은 다음에나타난다) 승리는 변동이 없었다고한다. 盧7단은 비상에 걸린줄 알고 초긴장이다. 【一凡】

우리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복합문화

새로운 운율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오는것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는 시간과 노력에
필요하다.

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르는법

조화를 이루며 사는것은
어렵지마는 않다.
음악도 배움으로서 가능한것
같이 이해도 마찬가지다.

자 함께 옳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Multiculturalism Canada /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침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합.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6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신분, 약간명 모집함.
658½ Bloor St. W.
전화 : 537-0432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캐디 or 하이디

가게 경험있고, 영어할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교통편한 다운타운지역. 주중 스테디 풀타임 JOB.
전화: 699-3953, 960-0376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일본·중화·한국및 햄버그·Fish & Chips. Take-out 식당매매.
◉7Days 7AM-9PM
◉일본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며 기차역전, 버스터미널 앞.
◉프라자에 위치함. ◉현재 월매상: $8,000 새리스: 5년.
◉월 렌트: $350. ◉권리금: $30,000(Cash)
◉사정에 의하여 팔고자 하오니 방문요.
23 Heleme St. Mississauga.(Port Credit역전)
CENTURY BURGERS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Space Rent
꽃·과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으로….
전화 : 783-0134 오후4시-8시사이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Flower Shop 매매함. 스카보로지역. 생긴지 5년반되고 작은 Plaza내. 영업시간은 조절됨. 리스 약4년. 렌트 월 $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438-2411(저녁 7시이후)

◉Milk Cooler(문 5개짜리), 길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l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게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벡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여행사를 위탁 경영 또는 인수
받으실분 찾습니다.

P.O. BOX 152
STATION P.
TORONTO, ONT. M5S 2S7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놓음. ◉1Bed Room Apt.
차고 세탁기사용 포함. 월 $400. 독신자. 또는 부부 환영.
전화 : 532-958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R)533-9061, 241-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선물센타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비데오 게임머신·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